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3133.74	↑ 코스닥	790.36
	(+18.79)		(+6.12)
↑ 금리 (미국 9년)	2.478	↑ 환율 (원·달러)	1376.65
	(+0.001)		(+8.75)

## 현지생산·MRO까지... K-방산 패키지 수출 전폭 지원

(유지보수)

▲ “방산 세계4대 강국 도약”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 정책금융·세액감면 등 추진 올해 200억 달러 수출 기대

전 세계적으로 K-방산을 찾는 손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 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목표를 내걸었다.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금융지원,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 세액 감면 등으로 총력 지원해 K-방산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조성한 우호적인 수출 환경으로 K-방산 업체들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기술이전·유지보수(MRO)까지 포함한 전략적 패키지 수출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방위산업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정상외교를 활용한 무기 세일즈 외교 강화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성장엔진을 동시에 잡기 위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

울일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 재편 ▲방산 수출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올해 방산 수출이 목표치 200억 달러(약 28조4000억 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수주 실적도 가파른 상황이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9월 이라크 국방부와 천궁-Ⅱ(M-SAM)를 28억달러(3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천궁-Ⅱ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히트-투-킬’ 방식 중거리 방공 체계다. LIG넥스원은 UAE·사우디에 이어 중동 세 번째 조단위 고객을 확보하면서 방공포대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인도와 3714억원 규모의 K



폭염에 전력수요 급증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가 95.7GW를 기록하며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뉴스

9 155mm 자주포 추가 수출 2차 계약에 서명했다. 1차(2017년) 계약보다 현지 부품 국산화 비율을 50%에서 60%로 끌어올렸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초고령 사회, 자산관리 전략**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장기 저성장 체질로 바뀐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메트로신문은 매년 개최하는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행사의 올해 주제를 ‘늦어지는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자산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차례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한층 복잡 다양해질 자산시장의 변화를 짚고 안정적·효율적 재테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 행사명 :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
- ◆ 주제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 ◆ 일시 : 7월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40~14:00)
- ◆ 장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의 및 참가 신청 : 100세 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 더 얇고 똑똑해졌다... ‘갤럭시 폴드7·플립7’ 공개

▲ 삼성 ‘갤럭시 언팩 2025’ AI 중심 사용경험 극대화시켜 텍스트·음성·이미지 동시 이해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서 초슬림 대화면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을 공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서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7과 갤럭시 Z 폴드7을 동시에 공개했다. 더 얇고 가벼운 디자인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결합해 폴더블폰 사용 경험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제품의 핵심은 ‘AI 중심 사용 경험’이다. 삼성의 갤럭시 AI는 텍스트·음성·이미지를 동시에 이해하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정보 검색·사진 편집·일정 관리 등을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구

글과 협력한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은 대화형 검색과 카메라 기반 도움 요청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폴더블 시리즈 중 고성능 모델인 갤럭시 Z 폴드7은 삼성의 폴더블폰 가운데 가장 얇고 가

벼운 제품으로, 접었을 때 두께는 8.9mm, 펼쳤을 때는 4.2mm이며 무게는 215g이다. 전면에는 6.5형 커버 디스플레이를, 내부에는 8.0형 대화면을 탑재해 몰입감 있는 멀티태스킹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2억 화소 카메라

라와 웹캠의 최신 칩셋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더해 강력한 영상 편집과 생성형 AI 성능을 구현했다.

갤럭시 Z 플립7은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가 4.1형으로 넓어지면서도 접었을 때 두께는 13.7mm, 무게는 188g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다. 시리즈 최초로 4,300밀리암페어시(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삼성 텍스’ 기능을 지원해 외부 모니터와 연결한 멀티태스킹도 가능하다. 닫은 상태에서 문자 확인, 음악 재생, 셀피 촬영이 가능하며, 줌 슬라이더나 듀얼 프리뷰 기능도 탑재해 셀피 특화 기능을 강화했다.

보안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4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

## 정규직 임금 첫 400만원 돌파하나

비정규직 격차 더 벌어져 올해 200% 넘을 가능성

올해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역대 처음으로 400만원대에 진입할지 주목된다. 또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의 200%까지 치솟을지 여부도 국내 고용시장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이 받은 액수는 비정규직의 185%에 달했다.

그간 통계청은 매년 10월 중 하순에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형태별 부가조사’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도이들의 합)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월평균 임금을 산출한다.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022년)의 362만3000원에 비해 4.78% 오른 수치다.

올해도 작년과 상승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2025년도 임금은 18.14원 오른 397만7000원을 기록하게 된다. 또 이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클 경우, 최소 5.4%(+20.49원)만 올라도 400만원 선을 돌파한다.

정규직 임금은 2007년(200만7000원)에 200만원대에 처음 진입한 뒤 5~6년마다 50만원씩 늘어났다. 50만원 단위의 도달 주기는 짧아질 전망이다. 재작년에 350만 선을 넘는 이후 2~3년(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만에 400만원대에 올라선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대를 찍었다. 그러나 정규직에 비해 더딘 오름세를 보여 왔다. 이런 흐름 속에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정부 “‘귀환 희망’ 北 주민 6명, 해상으로 안전 송환”  
▲김병기 “정보통신 발달은 기회이자 도전... 언론 역할 중요” /사진 뉴시스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 남편, ‘농지법 위반’ 의혹  
▲윤희숙 “국민 눈높이 혁신안 마련... 지도부, 망할 작정 아니면 받아들이 것”

▲박근혜 비공개 기록물 7784건 해제... ‘세월호 7시간’ 빠져  
▲홍준표, 국힘 비난 “혁신은 무슨... 또 대국민 사기칠 것”

# 주가 조작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간담회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감시체계 계좌기반→개인기반 전환  
고의·중대 위반시 100% 과징금

정부가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한 번의 위반으로 퇴출' 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자본시장에 본격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주가조작·불법공매도·허위공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 및 제재 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장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척결이 코스피 5000의 출발점"이라고 밝힌 이후 한 달 간 관계 기관 집중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설치...AI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

우선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거래소에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관련 브리핑 중인 모습. (신하은 기자)

설치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는 시장심리(거래소), 조사(금감원·금융위)가 분산돼 있어 대응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합동대응단은 단일 공간에서 각 기관이 협업해 이상거래 종목을 조기 포착하고, 심리·임의조사·강제조사를 신속히 연계하는 '워룸(War Room)' 체제로 운영된다.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고,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으로 구성된다. 전력자(재벌률 29.2%), 대주주·경영진, SNS·유튜브 기반 작

전세력 등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설정한다.

불공정거래 탐지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소의 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된다. 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수신해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동일인 식별이 어려운 기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로써 감시대상이 약 39% 감소하고, 자전거래나 시세관여율 등도 정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시스템에는 AI기술도 도입된다. 과거 심리 결과를 학습한 AI가 불공정거래 혐의 지표(Indicator)를 개선해 지능화된 작전기법도 조기에 포착하도록 고도화한다. 거래소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 ◆지급정지·과징금·임원선임제한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적용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최장 1년), 과징금 부과(최대 부당이득의 2배),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최장 5년) 등 3대 수단이 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계좌를 동결하고, 중대 사건은 외부에 적극 공표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의·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주문금액의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기관제재나 자본시장 거래 제한 조치도 병행된다. 불법공매도 의심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조치를 적용해 자금 해외유출을 방지한다.

상장기업 퇴출제도도 손질된다. 현재 정부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기준이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 같은 기준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감사의견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3년 연속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야 상장폐지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이 역시 부실기업의 퇴출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적발돼도 남은 장사'라는 인식을 반드시 깨야 한다"며 "7월 중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고, 3개월 내 개인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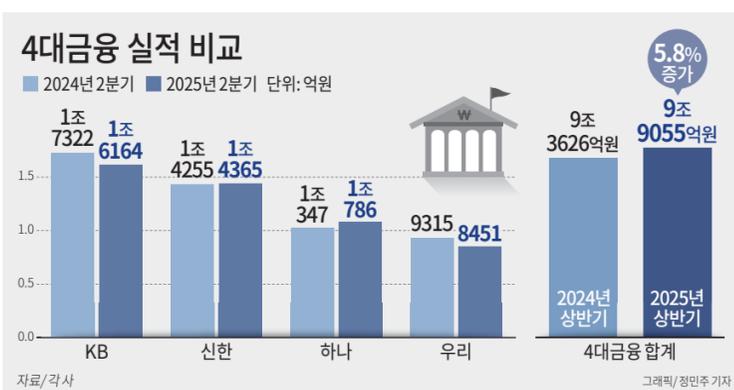
## 2분기 4대금융 순이익 5조... 상반기 기준 '역대최대'

KB·신한·하나·우리금융  
순이익 전년 대비 3.72% 감소  
상반기 순이익 9.9조, 5.8% ↑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2분기에 약 5조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예·적금 이율은 빠르게 내리고, 대출 금리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영향으로 천천히 내린 영향이다. 이자이익 외 비이자이익도 증가하며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4조9766억원으로 예상됐다. 1년 전 2분기(5조1688억원)와 비교해 3.72% 감소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금융의 2분기 순이익은 1조6164억원으로 1년



전인 1조7322억 원과 비교해 6.6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키움증권 김은갑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2분기 대손충당금과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환입이 1300억원 발생하며 이익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올해 2분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1년 전보다 110억원 증

가한 1조4365억원으로 관측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이자 이익이 일부 영향은 받았지만, 기업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그 영향을 상쇄했다. 연체율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대형 총당금을 적립할 이슈는 없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의 2분기 실적은 1조7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4% 증가할 전망

이다.

NH투자증권 정준섭 애널리스트는 "하나금융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자본 비율 민감도가 높다"며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하락 시 약 80~100원 손실·이익이 발생하는데 4~6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2분기 1000억~1200억원의 환 평가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같은 기간 864억원 감소한 8451억원으로 예상됐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가계대출과 대기대출 위주로 대출 성장이 견조하다"면서도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채권형) 프로젝트와 이낸싱(PF)에 대한 추가 총당금 적립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대 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9조9055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사유리 기자 yul115@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엔 황우여

국민의힘이 9일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사진)을 인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연 후 이같은 의결 사항을 밝혔다.

그는 "윤 원장은 처음부터 혁신위원장 유력 후보 중 한 분이었다"며 "아시 다시피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앞으로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윤희숙 원장은 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력을 쌓았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으며, 국회 자유발전 시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연설을 해 유명세를 치렀다.

2021년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대선 경선을 포기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 선대위에 합류하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선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과 승부를 벌였지만 낙선했다. 올해 1월 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인선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전력수요 최고치 경신... 서민 전기요금 부담 낮춘다

한전, 9월까지 비상근무 체제 돌입  
완화 주택 전기요금 누진구간 적용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 예비력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전력당국은 정전사태 대비를 위해 9월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등 서민 전기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는 95.7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 시간 기준 공급능력은 105.2GW, 예비력은 9.5GW로 전력예비율은 9.9%로 집계됐다.

통상 전력수요는 7월말에서 8월 초에 급증하는데, 올해는 2주 가량 빠르게 나타났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올 여름 전력수요량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예비력이 10GW 미만으로 예비력이 10% 수준인 상황에서 발전설비나 전력망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례적 폭염으로 한여름 수준의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10GW 예비력이 원전 10기가 동시 공급하는 발전력에 해당하는 만큼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2만5000여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여름에도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적용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계 누진구간 완화는 2015년, 2016년, 2018년에 한시적 시행 이후 2019년 누진제 개편을 통해 상시 제대로 매년 시행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K-기업, 원가절감·현지생산 등 대응... 피해 최소화 '방점'

## 트럼프, 관세 서한 발송

식품업계, 원가 경쟁력 강화  
화장품업계, 생산시설 구축 검토  
제약업계, 의약품 재고확보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식품·화장품·제약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협상 여지는 남아 있지만, 업계는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9일 90일 유예했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실제 부과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았다.

업계는 특히 K푸드와 K뷰티가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 수출 효과 품목인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전체 매출 1조7280억원에서 77%(1조3359억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원)가 해외에서 발생했고, 그 중 28%가 미국 시장이다. 삼양식품은 "정부 협상 상황과 TF를 중심으로 지역별 원가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가' 브랜드로 글로벌 김치 시장 1위를 지켜온 대상도 마찬가지다. 대상은 미국 LA, 오리건에 3곳의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현지 업체 '럭키푸드'를 인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출 비중은 현지 생산의 두 배 수준

으로 국내 생산분에 대한 관세 부담은 피할 수 없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고품질·저가격 전략에 급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뷰티 브랜드 기업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은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북미법인 원가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지만 프로모션 조정, 포장 단위 변경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 "미국 생산시설 구축은 장기 과제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는 지난달부터 펜실베이니아 2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선제 대응했다. 코스맥스도 미국법인 코스맥스USA를 통해 뉴저지에서 생산을 확대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공급망 재편과 수출 전략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200%에 달하는 고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1년에서 1년 반 가량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셀트리온은 최종적으로 미국 생산시설 확보를 목표로 삼고, 단계별 전략을 시행한다. 미국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재고 확보'에 가장 먼저 대비했다. 단기적으로 현재 2년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2년분의 재고는 상시 보유하고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미국 판매용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현지 위탁생산(CMO) 기업과 계약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갖춘 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SK바이오팜도 미국 생산을 추진해 왔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는 현재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을 제조하고 캐나다에서

벌크 태블릿 및 패키징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다. 이에 추가적으로 캐나다 외에 미국 생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지난 달 미국에서 열린 바이오 USA 2025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언급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령이라는 점을 짚었고, 이는 미국으로 생산 거점 이전(리쇼어링) 등에 중점을 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적합하면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차바이오텍 등은 미국 생산 시설을 직접 보유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시러쿠스에 위치한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BMS)의 공장을 인수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로 전환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022년 텍사스에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시설을 준공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시설에 의약품 생산을 위탁하려 해도 기술이전부터 규제 기관 실사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직접 생산 시설을 짓는 데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200% 관세율 실제 반영될지 관세율, 관세 부과 대상, 부과 시기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신선 기자 tree6834@metrosooul.co.kr

## >> 1면 '현지생산·MRO까지'서 계속

### 방산업계, 수주 순항 "정부와 협력해 성장"

차기 물량은 오는 2028년까지 라르센 앤드 투브로(L&T) 공장에서 완성되며, 탄약 자동보급장치와 무인사격통제(FCS)장치 등 추가 개량 요구 조건도 포함됐다.

현대로템은 지난 2일 폴란드와 65억 달러(약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K2 공급 2차 계약 효과는 단순히 현대로템만의 수주 잔고 및 수출 비중 확대로만 그치지 않는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주력 해외 수출지역이었던 중동 및 동남아에서 벗어나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수주 계약은 정부의 금융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산 강국 도약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체 계약액 가운데 약 80%가량을 정책 금융으로 조달하는 방안으로 무역보험공사가 대출 보증을 주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20~30% 범위에서 보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패키지로 기본 옵션화해 유럽과 인도·중동,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기술이전·유지보수(MRO)까지 포함된 전략적 패키지 수출 구조로 협약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산 강국을 위한 만큼 정부와 협력해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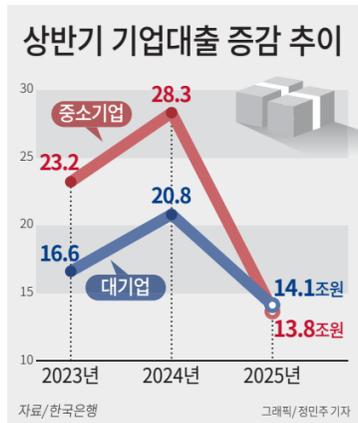
/이승용 기자 lsy2665@

# 은행, 상반기 기업대출 28조... 중소기업 공급액 '반토막'

## 리스크 적은 대기업 중심 확대 일각선 중소기업 부실 증가 우려

은행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의 부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은 가계대출 규제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부실이 커질 수 있다. 하반기 은행권의 대기업의 대출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1~6월) 기업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상반기(39조8000억원)와 2024년 상반기(49조1000억원)과 비교



하면 각각 29.9% 43.2% 감소한 수준이다.

이처럼 기업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을 중심으로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공급액은 총 1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인은 지난해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한 13조원을 공급하고, 개인사업자는 같은 기간 3조원이 줄어든 8000억원을 공급했다.

대기업이 지난해 상반기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조1000억원으로 3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기존보다 50% 수준으로 줄이면서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며 "기업대출 중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말 기준 0.83%로 1년전(0.66%)와 비교해 0.17%포인트(p) 상승했다. 중소기업인은 0.89%로 같은 기간 0.19%p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는 0.74%로 0.13%

p 올랐다.

대기업이 0.13%로 같은 기간 0.02%p 오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시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많아 그 자리를 대기업 대출로 채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대기업 대출 쏠림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달 6·27대출규제와 이달 스트레스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공급은 더 제한되고, 내수회복이 더디지면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부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 하반기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기업대출로 더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만큼 그중에서도 우량기업을 선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대출규제 미적용 단지 청약 급증

오티에르 포레, 평균 경쟁률 688대 1

서울이지만 6·27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 단지에 수만명이 넘게 몰리며 청약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9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포레'의 1

순위 청약에는 40세대 모집에 2만7525명이 접수했다.

오티에르 포레는 포스코이앤씨가 성수동1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3개 동, 287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단지다. 이 가운데 88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었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688.13대 1이다.

전용면적별로는 84㎡ 타입이 2세대 모집에 3314명이 몰려 경쟁률이 1657대 1까지 치솟았다. 앞서 특별공급 청약에도 48가구 모집에 1만1181명이 신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시행일인 28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중전규정이 적용된다.

서울 영등포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도 규제 시행일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청약홈에 따르면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1.35대 1로 집계됐다. 83가구를 모집에 1만5882명이 접수했다. 전용면적별로는 59㎡가 10세대 모집에 5827명이 몰려 청약 경쟁률이 582.7대 1을 기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 유전자 검사 '2주→1분' 단축... 시로 암 진단·치료 혁신

LG AI 연구원, '엑사원 패스 2.0' 병리 이미지로 변이 예측 가능  
美 밴더빌트병원과 공동 개발  
암 조기진단·치료 전략 정교화

LG AI(인공지능) 연구원이 유전자 변이 검사 시간을 기존 2주에서 1분 이내로 줄인 AI 기반 정밀 의료 기술을 공개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병원과 손잡고 암 정복을 위한 개인 맞춤형 치료 플랫폼 공동 개발에도 나선다.

LG AI 연구원은 병리 이미지와 유전자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정밀 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 2.0'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엑사원 패스 2.0은 환자의 조직 이미지와 DNA·RNA 등 생물학 정보를 함께 학습해 유전자 변이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고, 여기에 적합한 항암제와 치료법까지 제안하는 기능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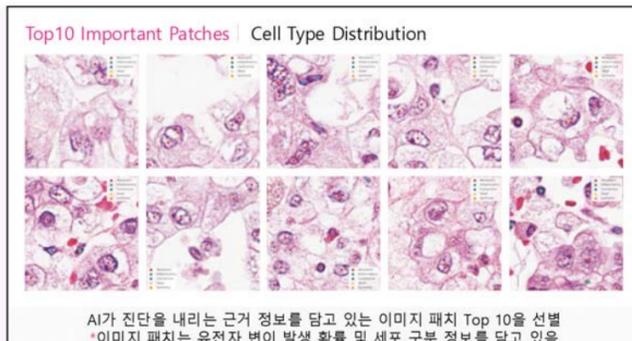
특히 값비싼 유전자 검사 없이 병리 이미지만으로 유전자 활성 여부를

## 엑사원 패스 (EXAONE Path)

AI가 조직 병리 이미지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영역을 시각화



엑사원 패스는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WSI)에서 암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예측할 수 있는 모습.



AI가 진단을 내리는 근거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 패치 Top 10을 선별  
\*이미지 패치는 유전자 변이 발생 확률 및 세포 구분 정보를 담고 있음

/LG그룹

78.4%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LG AI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핵심은 초고해상도 병리 이미지(WSI)를 전체 단위로 분석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이미지를 수천 조각으로 나눠 분석하는 방식이었지만, LG는 전체 이미지와 세포·조직 구조까지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기술을 적용해 예측 정확도를 끌어올렸다.

이번 모델은 기존 1.0 버전보다 고도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질병의 조기 진

단은 물론 예후 예측, 신약 개발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용민 LG AI 연구원 AI 비즈니스 팀 리더는 "엑사원 패스 2.0을 활용하면 기존 2주 이상의 유전자 검사 소요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해 암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신속하게 암 환자의 조직 표본 병리 이미지를 분석해 변이 발생 유전자를 확인하고 표적 치료제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G AI 연구원은 바이오헬

스케어 분야에서 미국 내 최상위 의료 연구기관인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황태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정밀 의료 AI 플랫폼 공동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

황 교수는 미국 정부의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의 위암 연구를 이끄는 한국인 석학으로, AI와 분자외학을 융합한 '분자 AI 이니셔티브'를 창립한 인물이다.

양측은 암 환자의 실제 병리 이미지와 유전자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질

병의 원인 규명부터 조기 진단, 표적 치료 전략 수립, 바이오마커 발굴까지 개인 맞춤형 의료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질병 발생 근본 원인 식별 ▲ 질병 조기 진단 ▲ 새로운 바이오마커와 타겟 발굴 ▲ 환자 개인별 유전자 정보에 맞는 치료 전략 개발 ▲ 치료 효과 예측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황 교수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며 "새로운 AI 플랫폼이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을 혁신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이식 거부, 면역질환, 당뇨병 등으로 연구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오는 22일 열리는 'LG AI 토크콘서트 2025'에서 해당 기술을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손목에서 시작된 건강”... 삼성·애플·구글, ‘의료 플랫폼’ 전쟁

### 커넥티드 헬스케어 급성장

삼성, 병원 플랫폼 인수로 진료 연계  
애플, 위치 기반 폐쇄형 생태계 강화  
구글, 앱·기기 있는 오픈 API 전략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 관리가 병원 처방과 연결되는 '커넥티드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병원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며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애플과 구글도 각기 다른 전략으로 헬스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9일 시장조사기관 BCC 리서치에 따르면,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450억 달러(약 58조원)에서 2029년 1,518억 달러(약 196조원)로 연평균 2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에서 측정된 생체 정보를 병원 진료와 연동하는 기술이 확산하



'갤럭시 링' 신규 사이즈 2종 이미지. /삼성전자

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미국 디지털 헬스 플랫폼 기업 '젤스' 인수를 발표했다. 젤스는 미국 내 500여 개 병원과 연결된 플랫폼으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당뇨, 임신, 수술 회복 등과 관련된 헬스케어 앱을 처방하고, 상태를 모니터



핏빗 '버사4' 구글 스마트워치. /구글

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 피드백과 앱 사용 현황도 병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출시한 '갤럭시 링'을 통해 심박수, 수면, 피부 온도 등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향후 젤스 플랫폼과 연계해 병원 진료 정보와 연결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장

할 계획이다.

애플은 애플워치를 중심으로 심전도(ECG), 체온, 낙상 감지 등 센서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병원의 전자기록(EMR) 시스템과 연동되는 '헬스킷' 생태계를 구축해, 사용자 건강 정보와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면, 심장 건강, 생리 주기 추적, 복용약 관리 등 다양한 기능도 탑재돼 있다. 모든 건강 데이터는 아이폰 잠금 시 암호화되며, iCloud로 전송되는 정보도 암호화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구글은 2021년 웨어러블 기기 업체 핏빗을 인수하며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최근에는 '헬스 커넥트' API를 통해 삼성헬스 등 다양한 헬스 애플리케이션(앱)과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구글은 데이터를 직접 수집

하기보다 건강 정보가 원활히 흐를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3사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웨어러블 기기를 단순한 피트니스 기기를 넘어 '개인 맞춤형 헬스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병원 플랫폼을 직접 인수해 의료 생태계에 뛰어들었고, 애플은 iOS 기반의 폐쇄형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구글은 다양한 앱과 기기를 연결하는 오픈형 API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웨어러블은 단순 운동 보조 기기를 넘어 병원과 연결되는 헬스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의료 데이터 보호, 보험 연계, AI 기반 처방 기술 등에서 기술과 제도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 반도체 골든타임 5년... K-파운드리, 역전 기회 왔다

산업부 '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 AI·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세  
파운드리 초과수요 진입 예고  
“적기 공급 역량 확보 사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향후 5년을 승부처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AI·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 선단공정 중심의 파운드리 부문이 초과수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회를 살릴 적기 공급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요의 중심이 모

바일에서 AI·데이터센터로 이동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6년~2030년까지 향후 5년간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최대 3000조원까지 폭증할 수 있으며, GPU·HBM·AI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간 빅파마 발주 가뭄 상황을 버티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 품귀로 일약 동북아의 핵심 공급 파트너로 부상한 것처럼, 오랜 시간 수주의 구조적 불리함 속에 고군분투해 왔던 우리 반도체

위탁개발생산(파운드리)에 짧지만 강력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추격도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YMTC는 NAND 부문에서 2021년 2.7%였던 세계 점유율을 올해 9%까지 끌어올렸고, 매출은 전년 대비 160% 급증했다.

이준선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MIC의 매출 대비 시설투자 비율은 98%를 기록했다"며 "과거 미국·일본·대만과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메모리·파운드리 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대규모 시설 투자와 이익 회수 후 재투자"라는 우리 성공방정식

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시간이 울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 구조와 자원 투입으로 기술격차 축소 기간은 물론 시장 내 물량 투입 사이클이 과거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역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로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인텔, 마이크론 등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공장 건설 비용에 대해 100% 즉시 비용처리를 허용하며, 기존 CHIPS법보다 보조금과 세액공제 비율이 대폭 상향됐다. 미국의 총투자지원 비율은 최대 29.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5.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 1면 '삼성, 폴드7·플립7 공개'서 계속

## “보안 기술에 내구성까지”

애플 암호화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킵(KEEP), 기기 간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녹스 매트릭스', 그리고 공용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안전한 '양자 내성 암호 기술'까지 적용됐다. 디자인 면에서는 초박막 강화유리, 고릴라 글라스,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내구성을 높였다.

국내 출시는 오는 25일로, 사전 판매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출고가는 갤럭시 Z 폴드7 기준 237만 9300원부터, 갤럭시 Z 플립7은 148만 5000원부터 시작된다.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저장 용량 무상 업그레이드, 인공지능 서비스 구독권, 액세서리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혜민 기자



## 합(合)에서 답(答)을 찾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전술은 완성됩니다.

기존의 에너지는 토대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는 동력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합해  
전에 없던 에너지의 답을 내놓습니다.

##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 국민의힘, '친윤 vs 반윤' 갈등 커져... 치열한 당권경쟁 전망

안철수·조경태 의원 당권 도전  
반윤 후보 당선 시 친윤 인적쇄신  
친윤계 주류, 장동혁 의원 밀어  
김문수·나경원 등도 출마 고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위원장을 내려놓고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인으로 장동혁 의원을 내세우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주류에서는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후보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분위기”라며 “그러면 남은 건 장동혁 의원이다. 주류는 장동혁, 친한(한동훈)계는 조경태 의원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후보를 밀 수가 없다”며 “이번에 당 대표는 미래 대선까지 나갈 수 있는 젊은 인사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장동혁 의원으로 중지가 모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대선 후보도 지난 4일 서울에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국민이 위축돼 있을 때 김문수는 말하겠다”며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농성을 펼친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파동으로 국민의힘 송언석 지도부가 내세운 당의 전반적인 혁신이 ‘좌초 위기’를 겪으며 당 내 계파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8월 전 당대회에 당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21대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친윤(친윤석열)·반윤(반윤석열)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윤을 대표하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역시 반윤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의 핵심인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이 당권에 도전한다. 이외에도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과

양향자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반윤 후보가 당권 후보를 잡으면 어떤 식으로든 친윤 세력에 대한 인적쇄신이 강력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쌍권(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을 염두에 둔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혁신위원장 사퇴의 중요 이유로 꼽았다. 안 의원의 주장에 쌍권은 각각 반발하는 입장을 내며 비열한 정치행태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을 내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한 45명 이상의 의원을 상대로 강력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철수 의원이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들어 책임질 사람만 책임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인적쇄신을 펼친 것과 상반된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상설기구로서 인적쇄신위원회 구성이 제 공약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6일 때 한

남동 관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집결했던 의원들이 무려 45명”이라며 “이분들을 포함해서 각종 의총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억압하거나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자꾸만 쓰려고 했던, 즉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보고 인적쇄신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경중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친윤계에서는 자신들의 대리

##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등록 D-DAY

# 정청래·박찬대, ‘명심·호남 민심’ 공략

정청래 “후 대통령과 수많은 대화”  
광주서 북콘서트 등 세 모으기 골몰  
박찬대 “후 대통령 사무실 물려받아”  
전북·전남 찾아 현안공약 실현 강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일 전북 전주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10일 하루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의 호남 민심 구애·명심(이 대통령의 마음) 마케팅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하루 동안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제3의 후보설까지 정치권에 돌았지만 사실무근으로 판명나 정청래·박찬대 의원 사이 2파전으로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때 3~4 시간 옆자리에 같이 앉았다. 그때 대화를 많이 했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 개인적 선호도, 취미, 습관도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가 일각에서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조율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일반국민 30%가 당 대표 선거에 반영되는 만큼, 권리당원이 밀집한 호남 민심을 구애하기 위한 두 의원들의 전략도 돋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광주 지역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는 등 세 모으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인터뷰에서 전남의 현안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제가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당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진만큼, 후보들은 정부 출범 초기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9일 오후 MBC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 만난지 20년 가까이 된다. 얼마나 수많은 대화를 했겠냐”라며 “1기 지도부 최고위원으로 이 대표 옆자리 짝꿍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돌이 나는 대화가 너무 많다.

박찬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썼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818호를 자신이 물려받았다며 이 대통령과 자신 사이의 가까운 거리를 드러냈다. 또한 박찬대 의원실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을 맡았던 김태선 의원과 김용만 의원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를 돕고 있다”며 “지금까지 35명의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찬대 의원은 전남(8일) 전북을 찾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지역의 현안 공약을 실현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은 민주당의 영원한 선생님이다. 민주당이 갈 길을 잃었을 때, 전남은 항상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셨다”며 “저 박찬대, 그 선생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학생이 되겠다. 제대로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박태홍 기자

## 민주당 “국회통상특별위원회 설치하자”

美 관세 대응... 국민의힘에 제안  
“지금은 국익 위해 힘을 모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인 ‘국회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산업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칠 미국발(發) 관세 청구서는 단지이 재명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관세 위기 돌파를 위해 국회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전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비해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에 국회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자. 국민의힘의 전략적 해답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에 압박해오는 것을 언급하며 “지금은 국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든든하게 뒷받침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

대통령실 “후 정부 뒷받침할 인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영수 신임 1차장은 국조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며 “민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김용수 신임 2차장에 대해서는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첨단산업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전략산업위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라며 “AI(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 HANA THE SOHO

##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 맞춤 금융
- 경영 지원
-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카드업계, 소비쿠폰 준비 '총력'... 서버 증설·보안 강화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시작  
편의점·배달음식점 등 사용 가능

수익성 없지만 소비자 불편 방지  
서비스 차질은 상표까지 직격탄

카드업계가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버를 증설하는 등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양새다.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1인당 15만~55만원의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가맹점과 대형프랜차이즈의 경우 편의점과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배달음식점 등이 포함된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휴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은행과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2조 17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오늘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편의점,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뉴스스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단기간에 이용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서버 점검에 착수하고 보안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 혼동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카드사별 가맹점 안내 시스템도 구축한다.

카드업계에는 소비쿠폰이 별도의 수익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카드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 매출 30억 미만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0.5~1.5%, 체크카드는 0.15~1.15%다. 0.05%~0.1%씩 일괄 감소했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

난해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연간 4.1% 증가한 1209조3000억원이다. 단기간에 12조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지만 지난해 사용액의 0.9%에 그친다. 서버증설 비용과 유지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하면 '역마진'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별도의 비용을 투입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배경에는 상표까지 제고 때문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경험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서버 정지 등의 불편사항이 상표까지 훼손으로 직결되는 만큼 '기본만 하자'는 심리도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마케팅 경쟁 과열을 지양하라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수익성이 거의 없는 사업인 만큼 과도한 마케팅이 이뤄지길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업은 카드사가 수혜를 받는 것 처럼 비춰지지만 수익성은 전무한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그럼에도 정부사업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카드 News

KB국민카드

### 국내 관광업종 가맹점 결제 고객 대상 '경품'

KB국민카드는 '두근두근 K-바캉스, 꿀잼가득 국내여행'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보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내달 8일까지 국내 관광 업종 가맹점에서 5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은 ▲KB페이머니 100만원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50만원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10만원 ▲모바일 주유권 5만원 ▲스타벅스 상품권 등으로 구성했다. 총 160명을 추첨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K-바캉스 캠페인에 참여하여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현대카드

### EV 카드 혜택 강화

#### 넥쏘결제금 1.2% 캐시백

현대카드는 현대 EV카드의 혜택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 EV카드는 넥쏘 결제 금액의 1.5%를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적립하거나 1.2%를 캐시백한다. 1000만원 이상 결제하고 '블루 세이프-오토'를 이용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은 별도로 적용한다.

연료 충전 시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충전 금액의 50%, 80만원 이상 시 100%를 할인한다. 이어 유지관리 업종을 이용하면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를 적립한다.

삼성카드

### 다이렉트 오토 카드

#### 무이자 할부·금리할인

삼성카드는 다이렉트오토카드 할부로 테슬라 모델 3 RWD를 구매하면 무이자 할부 또는 금리 할인을 제공한다.

무이자 할부 혜택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어 36~60개월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은 할부원금에 따라 무이자 할부 또는 최고 2.5% 금리를 적용한다.

다이렉트 오토 카드 할부 이용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금리할인 행사는 카드 승인 및 차량 인도 완료일 기준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일시불 또는 카드 할부 선수금 결제 고객에게는 1.5%를 캐시백한다. 캐시백 혜택은 7월 31일까지다. 일시불 캐시백은 100만원 이상 결제시 받을 수 있다. /김정산 기자

## 임기 얼마 안남았는데...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하마평 깜깜

정완규 회장 임기 90일 남짓 남아  
차기 회장 당국과 소통 능력 요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사진)의 임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기 회장 하마평이 나오지 않고 있다. 통상 회장 자리를 두고 수개월 전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했던 것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완규 회장의 공식 임기는 오는 10월 5일까지다. 지난 2022년 10월 취임 이후 3년 임기가 90일 남짓 남았다. 지난 선거에서 여신금융협회는 임기 시작 2개월 전에 회장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회장 선발 작업에 나섰다. 원칙대로라면 내달 차기 회장 선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여신협회는 아직까지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 별도로 논의 중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개편과 수장 인사가 결정되지 않아서다. 업계에서는 예비 후보자들도 금융당국의 기조를 살펴야하는 만큼 선불리 출사표를 던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개편과 수장 인사때까지 여신협회 회장 선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여신협회 정관에는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전에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회장 선임 시까지 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관상 정 회장의 연임도 가능하다. 여신협회는 회장과 상근이사, 회원이사, 감사 등 임원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13대까지 회장이 거쳐갔지만 연임을 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현재로서는 차기 회장 선출까지 정 회장이 공백을 채우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앞서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 또한 금융위로 자리를 옮기기 전 여신협회장직을 1개월여 추가로 수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 관료 출신 회장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여신협회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 지난 2010년 이후 총 5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김덕수 전 KB국민카드 사장을 제외하면 모두 관료 출신이 회장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정 회장 또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취임 당시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던 이유다.

차기 회장에게도 금융당국과의 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여전업계가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를 허용해달란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KB국민카드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등록했다.

이밖에도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한 자금이체 업무 수행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카드사 자체 계좌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 이어 캐피탈업권은 중고차 매매 알선과 통신판매중개, 보험대리점업무 허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전법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한 여전업계 관계자는 "여신협회장은 금융당국과 여전사의 의견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최근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물론 신기술금융사(V C) 등의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흐름인 만큼 차기 회장의 역할이 막중하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 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 확대

국내 최초 개발 D-사일런스 서비스  
소음 기준치 벗어난 세대 자동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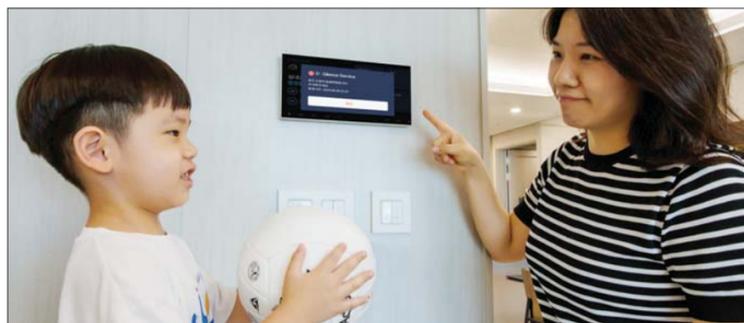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시장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39dB(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을 울리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층간소음 기준치를 벗어난 세대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돼 아랫집이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세대별 층간소음 알림 통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앞서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됐다. 입주



D-사일런스 서비스가 작동하는 모습. /DL이앤씨

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 이상의 세대가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세대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이 같은 상용화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시장 적용 확대에 나

섰다. 지난 5월 수주한 '아크로 한남'을 비롯해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아크로 드서초' 등 주요 단지에 D-사일런스 서비스를 적용한다. 향후 성수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핵심 수주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최소 64조’ 알래스카 LNG프로젝트 참여 ‘득과 실’ 저울질

韓美 정상회담 핵심 의제 떠올라 대통령실, 이달 넷째주 회담시기 조선업계, LNG·쇄빙선 수주 기대 “사업 추진엔 국내 주수 가능성” 알래스카-아시아, 비교적 가까운 일부선 운송선박 수요감소 우려



알래스카의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뉴시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 개최를 목표로 조율되는 가운데 한국의 알래스카 LNG프로젝트 참여 여부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십조원 규모의 대형 에너지 사업인 만큼 경제성·외교적 파급력 등을 놓고 산업계의 이해득실 계산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삼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사업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다만 경제성 및 리스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해 득과 실을 따지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한미 간 통상 협상의 주요 카드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는 수익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알래스카 LNG사업은 최소 440억달러(약 64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업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 공사 과정에 필요한 장비·설비 부문에는 참여 의지가 있으나 한국이 자원 개발에 직접 투자한 전례가 많지

않은 만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조선업계 일각에선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LNG선, 쇄빙선 등에서 수주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사업대상지가 북위 51도에서 72도에 걸쳐있고 북극과 인접한 알래스카에서 LNG를 시추하려면 쇄빙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쇄빙 LNG운반선 가격은 일반 LNG운반선 대비 1.5배 가격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더욱이 강관업계의 수혜 기대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고강도 강관 생산이 가능한 종합강관 제조업체인 세아제강 등 국내 강관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탄소강 강재를 사용하는 원유나 가스 및 달리 LNG파이프라인에는 스테인리스(STS) 강관을 사용해야 한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박사는 “알래스카 LNG사업이 추진되면 국내 조선업계가 LNG운반선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LNG개발을 위한 생산 플랜트와 관련해서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다만 아직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전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 등 혜택 발생 시점이 확정되어야 어느 정도 규모의 수혜가 예상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래스카 산 가스는 기존 시장에 없던 자원이기에 공급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수송·인프라 수요도 새롭게 생길 것이기에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LNG선 수요가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알래스카가 아시아와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 기존보다 적은 수의 운송선박으로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수요처까지 장거리 운송이 필요해 많은 LNG선이 요구됐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양중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알래스카 LNG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이라면 미국 자국 기업들이 먼저 나설 것이다. 미국 에너지 대기업 엑슨모빌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손을 댄 사례가 있다”라며 “미국이 동맹국에 강제적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쇄빙선이 필수이긴 하지만 한국이 쇄빙선을 많이 만들어본 경험이 없어 수주가 북유럽이나 러시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근로자 어깨근력 보조 ‘엑스블 솔더’ 도입

현대차, 착용로봇 대한항공에 전달 반복적 윗보기 작업 피로·부상 줄여



현대차 고양하이테크센터에서 작업자가 ‘엑스블 솔더’를 착용하고 차량 하부를 정비하는 모습.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능력을 올리고 근골격계 부담을 낮추주는 착용로봇이 항공 정비 업무에 본격 도입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대한항공에 자사가 개발한 산업용 착용로봇 ‘엑스블 솔더’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엑스블 솔더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전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 착용로봇을 본격 판매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엑스블 솔더는 반복적인 윗보기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어깨 근력을 보조한다. 이를 통해 근골격계 부담을 줄여 작업자의 부상 위험을 낮추고, 작업 피로도를 경감해 생산성을 높여준다.

엑스블 솔더 착용 시 경감되는 어깨 관절 부하와 전·측방 삼각도 활성도는 각각 60%, 30%에 달한다. 또 무동력 토크 생성 구조로 설계돼 가벼울 뿐만 아

니라 별도로 충전할 필요가 없어 유지 및 관리도 용이하다.

대한항공은 항공우주사업본부의 균용기 및 민항기, 무인기, 도심항공교통(UAM), 우주 발사체, 스텔스 항공기 등을 조립·정비하는 현장에 엑스블 솔더를 우선 도입한다. 항공 산업은 높은 기체 규모로 정비 시 윗보기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착용로봇 도입으로 작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차·기아는 대한항공 전달식을 시작으로 사전 계약을 진행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국내 제조 기업 등 다양한 고객사로 엑스블 솔더를 본격 인도한다. 향후 건설, 조선, 농업 등의 산업군에도 판매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LS마린솔루션, 신안우이 해저케이블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LS마린솔루션이 전라남도에서 시행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되는 ‘신안우이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시공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화오션과 SK이더닉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390M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본공사 착공은 2025년, 해저케이블 시공은 2027년에 이루어지며 상업운전은 2029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LS마린솔루션은 대만전력청 TPC2(295MW) 프로젝트 계약, 해상 해상풍력(1GW)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사업까지 수주하며 시공 역량과 글로벌 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2024년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성공적인 시공 경험, 한화오션과의 풍력단지 기획 단계부터 이어져 온 긴밀한 협력 등이 이번 선정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LS마린솔루션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8.2GW 규모로 계획된 신안 해상풍력 벨트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후속 사업 수주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 안정성에 경제성 갖춰... 생애 첫 차로 딱!

YG의 CAR TALK 카톡

푸조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STLA 미디엄’ 최초 적용 모델 변속기, 시동버튼 옆으로 옮겨

푸조는 국내 시장에서 뛰어난 제품 완성도와 안전성을 갖춘 브랜드로 유명하다. 특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인 만큼 디자인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과거 국내에서 30·40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운전자와 여성들이 주요 고객층을 형성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와 생애 첫차를 고민하는 소비자

들을 위한 모델이 출시됐다. 바로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제품 완성도와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까지 갖춘 모델이다.

이번 3세대 올 뉴 3008은 스텔란티스의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 ‘STLA 미디엄’이 최초 적용된 모델로 디자인과 공간, 파워트레인, 기술 등 전반적으로 푸조의 혁신을 담았다.

첫 인상은 사자 발톱 형상의 주간 주행등으로 이어지는 경계를 없앤 전면부 등은 푸조 고유의 스포티하고 세련된 디자인 감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지난 8일 8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돌아온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GT 트림을 타고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베서더를 출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발해 경기 남양주 수동휴게소 톨게이트를 경유, 가평군 글램트리 리조트까지 왕복 약 110km를 주행했다.

우선 실내는 최신 모델답게 군더더기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센터 콘솔 부분에 있던 변속기를 시동 버튼 옆으로 옮겨 시동과 변속에 일체감을 준다. 다만 일반 변속기와 위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운전자가 적응하기 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5년간 누적 투자액 1조 넘어서

고려아연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600억원을 투자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액도 누적 1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고려아연이 펴낸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약 5666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492억원 대비 12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 이후 작년까지 5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금액은 약 1조 146억원이다. ▲2020년 234억원 ▲2021년 79억원 ▲2022년 3675억원 ▲

2023년 492억원 ▲2024년 5666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용이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호주에 오랜 기간 투자해왔다. 2018년 124MW 규모로 현지 최대 산업용 태양광 발전소인 ‘썬-메탈스슬라팜’을 건설했으며 2021년에는 자회사 아크에너지를 설립했다.

2022년에는 아크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 ‘에퓨론’을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923MW 규모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의 30%를 취득해 발전용량 277MW를 확보하며 부분 가동을 개시했다.

수소 생산과 저장, 수송을 아우르는 그린수소 밸류체인 형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3년 그린수소 생산·충전시설인 ‘SunHQ’를 착공했고 올해 초 공사를 완료하여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 스타트업 업계, 플랫폼법·공정거래법 반대

## “모호한 규제로 스타트업 성장 제한”

코스포, 사전규제 문제 제기  
“이중·삼중 규제로 생태계 위축  
단순 반대 아닌 체계마련 요청”

스타트업 업계가 알고리즘 공개·수수료 공시 의무 등을 담은 플랫폼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당시 코스포는 “이중·삼중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며 플랫폼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전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코스포는 성명을 통해 “알고리즘 투명성 공시, 수수료 공시 의무, 표준계약서 강제 등은 기존 온플법,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사전규제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 기회를 제한한다”며 “모호한 규제 기준은 스타트업을 사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이미지

상 대기업과 동일한 틀에 묶여버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용자수가 많은 중소 플랫폼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법률 플랫폼 ‘로톡’은 각각 의료법과 변호사법 해석 변경에 따라 서비스 운영 제한을 겪은 사례다.

스타트업 정책 전문가들도 현행 입법 기초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규제 정책 연구자는 “규제 목적이 정당하다라도 대상과 방식이 정교하

지 않으면 산업 전체의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기술 기반의 초기 스타트업에게 ‘공개 의무’는 생존 전략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규제 기조와의 연계도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공약에서 플랫폼 독점 견제를 위한 공정경쟁법 제정을 약속했고, 현 정부의 ‘진짜성장 전략’에서도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 해설서에는 ‘신산업 진입장벽 완화’와 ‘규제 개혁’의 병행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어, 규제의 강도와 대상 설정에 대한 정교한 조정이 요구된다.

코스포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스타트업에 맞는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요청”이라며 “대형 플랫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를 살리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앞으로 국회 및 정부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플랫폼 산업 전반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규제 설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은행 문턱 낮춘다

한전·KCB 서비스 제휴 협약  
노란우산 기반 평가모형 등 제공

‘노란우산’ 납부액과 전기요금 정보 등이 만나 218만 소상공인들이 보다 나은 신용등급으로 은행 문턱을 좀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력공사, 코리아크레딧부로(KCB) 주도로 제1금융권 이용 경력이 없어 장사가 잘 돼도 시중은행 거래가 힘들었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새로 받고,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공동 개발하면서다.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정한 평가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한전, KCB와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휴’ 협약을 맺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했다. 올해 1~2월에도 20만명 넘게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더 필요하고 이자 경감이 절실하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대안신용평가 모형은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신용도가 낮았던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출 기회를 제공하고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 기관은 지난해 8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동안 각 기관이 보유한 소상공



(왼쪽부터)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황종섭 코리아크레딧부로 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진행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인 관련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대안신용평가 모형 개발에 성공하고 이번에 제휴까지 하게 됐다.

김 회장은 “업무협약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기관간 MOU를 통해 이런 아웃풋(output)이 나올지 나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새 평가모형은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을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공제기금 부금액 그리고 한전의 소상공인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납부정보 등과 KCB가 보유한 사업자신용정보를 결합해 소상공인의 신용 건전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부금을 납부했는지,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전기를 사용하고 요금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이 은행 대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재무평가 중심의 기존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평가모형은 KCB의 기존 소상공인 전용 평가모형과 비교해 전체 600만 소상공인인 가운데 36%에 달하는 218만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분석이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보증 등 정책금융기관 활용도 좀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기존 신용등급이 7~10등급으로 낮았던 약 18만(3%) 소상공인들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 신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전이 시행 중인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성과는 2250만호에 설치한 AMI(지능형전력량계)로부터 추출한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직 570만호는 미구축 상태인 만큼 추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웅진그룹, ‘웅진프리드라이프’ 출범

신규 CI 공개… “고객의 삶 동행”

웅진그룹이 앞서 인수한 프리드라이프를 ‘웅진프리드라이프’로 사명을 바꾸고 본격 출범했다.

9일 웅진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프리드라이프 인수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이달 4일엔 간판도 새로 달았다.

이에 따라 웅진그룹은 선수금 기준 국내 1위 상조회사를 토대로 ‘토탈 라이프케어’ 기업으로 도약을 모색한다. 자사의 브랜드 자산과 시너지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 높은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다.

새롭게 출범하는 웅진프리드라이프는 프리드라이프가 축적해 온 장례 의전과 웨딩, 크루즈, 시니어 케어 등 생애주기 맞춤형 라이프 서비스 역량에 웅진그룹의 전국 영업망과 회원제 시스템, 교육 및 콘텐츠, IT 역량을 더해 고객의 삶 전반을 케어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



웅진프리드라이프 CI

속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사명 변경과 함께 새로운 기업 이미지(CI)도 공개했다. 새 CI는 신뢰성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프리드라이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웅진그룹과의 연결성과 따뜻한 브랜드 철학을 반영해 디자인했다.

김만기 대표는 “웅진그룹의 고객사랑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철학과 프리드라이프의 서비스 전문성을 결합해 고객 삶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라이프케어 브랜드로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방향”이라며 “새로운 이름 아래 더욱 향상된 서비스로 고객의 삶에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장진원, ‘CES 혁신상’ 노하우 공유

‘혁신상 수상 전략 세미나’ 개최

창업진흥원이 국내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미국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노하우를 전수한다.

장진원은 10일부터 ‘2026CESK-창업기업 통합관 세미나’ 시리즈의 포문을 여는 ‘혁신상 수상 전략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달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일부 세미나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다.

10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선 전문상담을 140건 이상 수행한 김벤처러스 김현성 대표와 지난해 박람회

에서 ‘모바일 기기, 액세서리 및 앱’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오티톤메디컬 김재영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수상 전략 및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CES 참가를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홍보물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최근 3년간 CES 혁신상 수상 기업 중 K-창업기업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국내 창업기업 기술력이 국제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잠재력 있는 창업 생태계 속 ‘숨은 원석’들을 발굴하고 정체하는 ‘창업 공방’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신세계까사, 여름철 수면 시장 두각

‘마테라스 포레스트 컬렉션’ 매출 상승

신세계까사(SHINSEGAE CASA)가 여름철 수면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9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마테라스 포레스트 컬렉션’ 매출은 올해 1~5월 평균 매출과 비교해 20%가량 증가했다.

특히 대표 모델 ‘클라우드H’는 1월 출시 이후 6월에 월간 기준 최고 매출을 올렸다.

이번 실적은 지난 1년간 라인업 정비와 유통 채널 확대를 통해 브랜드 기반을 다져온 가운데 무더위가 시작되며 기능성 매트리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계절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회사측 분석이다.

‘마테라스 포레스트 컬렉션’은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 소재만을 사용해 전 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고, 체온과 습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다양한 천연 소재를 다층 구조로 적용해 여름철 수면 환경에 대응하도록 설계한



신세계까사의 마테라스 포레스트 컬렉션 ‘클라우드H 매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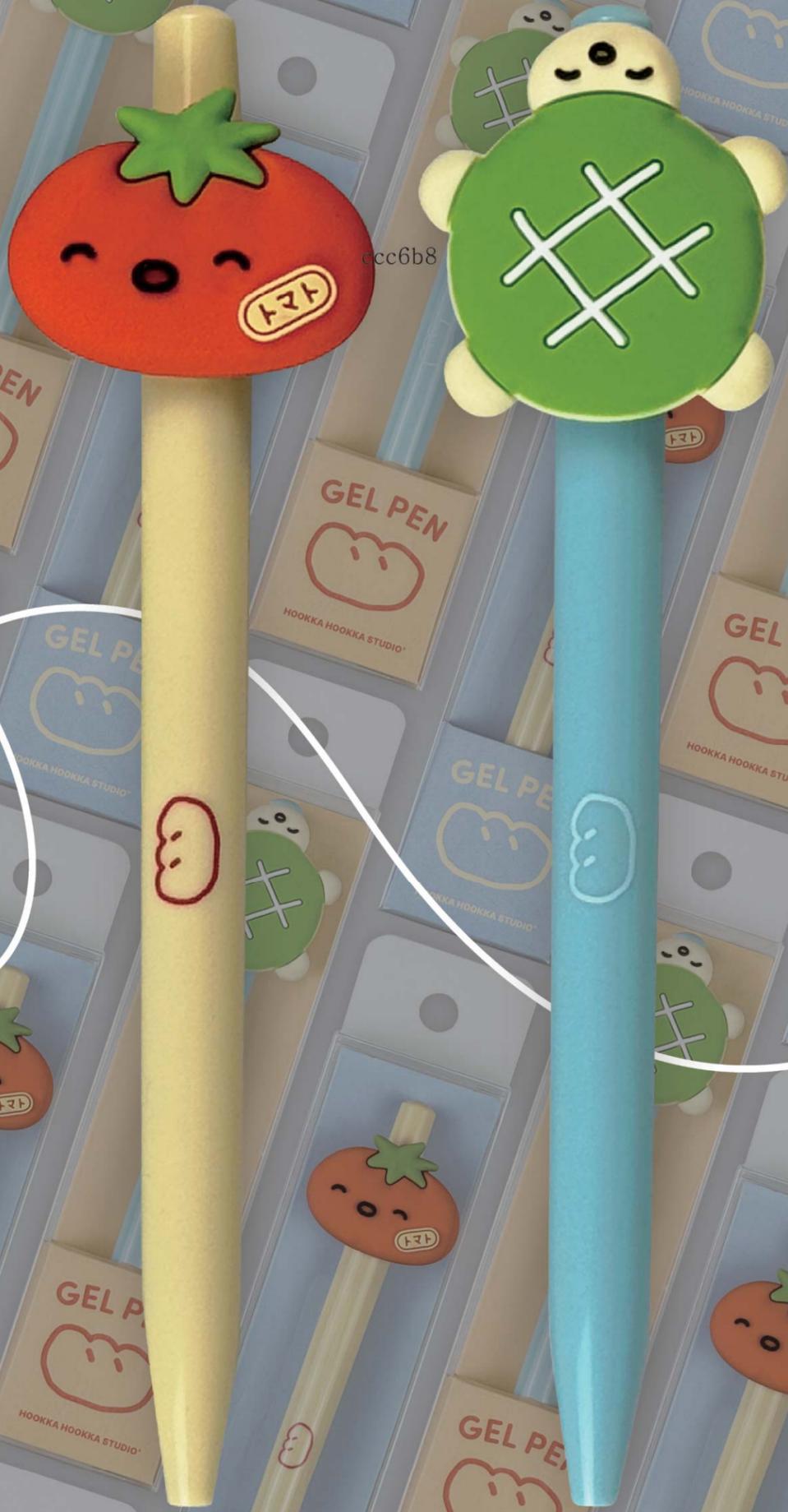
것이 특징이다.

신세계까사는 이달 말까지 여름철 수면 문제를 겪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품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마테라스포레스트 컬렉션 매트리스 신규 구매 시 회원 등급 및 구매 조건에 따라 최대 26% 할인가에 구매 가능한 특별 행사를 이달 27일까지 진행한다. 같은 기간 브랜드와 관계없이 매트리스를 사용하던 고객이라면 ‘온국민 보상판매 프로모션’을 통해 최대 35%까지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GEL PEN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 후카후카스튜디오 ]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 재생에너지·인버터 등으로 'ESG 경영·비용절감' 달성

## 데이터센터 전력난 해법은

삼성SDS 태양열 급탕 등 활용  
액침냉각 시스템 설계·시범 구축

NHN클라우드 BEMS 등 도입  
단열 냉각 시스템으로 프리쿨링 효과

포스코DX 냉각수 순환 펌프에  
인버터·IoT 스마트 모니터링 적용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DC)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주요 IT 기업들이 전력 효율화 기술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전력 먹는 하마'로 부상한 데이터센터의 기술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 ◆삼성SDS, 액침냉각부터 재생에너지까지... 전력 절감 다각화

삼성SDS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2년 2526TJ(테라줄), 2023년 3225TJ, 2024년 3782TJ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회사는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기에 대비해 외기 냉방, 항온·항습기 최적화, 냉수 펌프 인버터 도입 등으로



포스코DX의 충주 데이터센터.

/포스코DX

냉방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삼성SDS는 현재 가동 중인 수원·상암·춘천·동탄 DC에서 태양열 급탕, 태양광 발전,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및 자체 생산량 증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동탄 데이터센터에는 액침냉각 시스템을 설계 및 시범 구축했다.

삼성SDS는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매 방식을 통한 간접적인 재생에너지 전환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녹

색 프리미엄 입찰에 최초로 참여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 5562MWh를 사들였으며 미국·영국·중국 등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5634MWh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추가로 구매했다.

### ◆NHN클라우드, 글로벌 평균 웃도는 PUE 1.3 달성

NHN클라우드의 NCC(판교 소재 데이터센터)는 2022년 22만709GJ(기가줄), 2023년 24만6046GJ, 2024년 23만9002GJ의 전력을 소비했다. NHN의 NCC와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전력 사용 효율)는 1.3으로 2024년

글로벌 평균(1.5)보다 우수하다. PUE는 데이터센터의 전체 전력 대비 IT 장비에 실제 사용되는 전력의 비율로, 1.0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다.

NHN클라우드는 다양한 DC 전력 효율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NCC는 간접 증발식 냉각 시스템과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했다.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냉복도와 열복도를 분리한 컨테이너 시스템을 적용해 차폐 환경을 조성하고, IT 장비의 수명 주기를 고려한 모듈형 서버룸을 구축했다.

여기에 폭 조절이 가능한 자체 개발 랙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성과 고집적 운영 환경을 동시에 확보했다. 여러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기준 약 2067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뒀다.

국가 AI 데이터센터에는 물의 증발 점열을 이용해 응축기에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를 사전에 낮추는 단열 냉각 시스템을 도입, 프리쿨링 효과를 극대화해 물과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 최적화 노력 덕분에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2024년 기준 PUE 1.294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 ◆포스코DX, 스마트 인버터와 IoT로 전력 낭비 최소화

포스코DX는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설비 개선과 스마트 솔루션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충주 데이터센터에서는 2023년 냉각탑 충전재 교체 등으로 냉방 효율을 약 5% 개선해 연간 18MWh의 전력을 절감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8269톤 줄이는 효과를 냈다. 2024년에도 스마트 솔루션 도입으로 91만5555kWh의 전력을 추가로 절감해 약 420.6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포스코DX는 데이터센터 내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냉각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해 2024년 12월 냉각수 순환 펌프에 스마트 인버터 설비를 도입했다. 이 장치는 펌프 모터의 주파수를 정밀하게 제어해 운전 효율을 제고하고,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여기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해 설비별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과도한 에너지 사용 구간을 즉시 파악해 최적화 조치를 취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위메이드플레이, '애니팡' 팬 사연에 응답

단종된 '애니' 인형 찾는 팬 사연에  
전사적 수색 통해 사료 보관용 찾아  
애니팡 IP 대중적 저변 확인 사례

위메이드플레이가 '애니팡' 팬 어린이의 사연에 응답해 단종된 애니 인형(사진)을 찾아 특별 증정했다.

위메이드플레이가 단종된 애니팡 프렌즈 캐릭터 '애니' 인형을 어린이 팬에게 전달한 사연이 9일 공개됐다. 인형을 잃어버린 딸을 위해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부모의 사연에 회사가 직접 사내 재고를 수소문해 응답한 것으로, 팬심을 따뜻하게 보듬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회사는 지난 6월 말,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한 게임 팬이 고객센터에 보낸

편지를 통해 해당 사연을 접했다. 팬은 다섯 살 딸 은채 양이 잃어버린 '애니' 인형을 다시 구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에 중고 제품이 라도 웃돈을 주고 사고 싶다고 호소했다. 은채 양은 며칠째 인형을 찾으며 울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위메이드플레이가 약 4년 전 캐릭터 사업을 중단하면서 관련 상품 유통도 중단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에 서비스운영팀과 마케팅팀은 인형 증정을 결정하고, 사내 재고와 개인 소장품을 수소문하는 전사적인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홍보팀에서 사료용으로 보관 중이던 '애니' 인형 3개를 발견했고, 이 중 1개가 은채 양에게 전달됐다.

배용성 서비스운영팀장은 "기록 보관용으로 남겨둔 인형이 이제 두 개 남았지만, 어린이 팬이 소중한 간직해주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사내에서도 이번 선물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12년 첫 출시된 '애니팡'은 한국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작으로, 오리지널 시리즈 4편과 파생작 7편을 포함해 지금까지도 장수 IP로서 국민적 호감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 측은 은채 양의 사연 또한 세대를 아우르는 애니팡 IP의 꾸준한 호응과 대중적 저변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

위메이드플레이 우경훈 IP브랜드팀장은 "은채 양의 애착 인형 사연은 사내에서도 큰 울림을 줬다"며 "애니팡 IP가 국민 게임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좋은 게임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 LG U+, 5G 기반 IoT '레드캡' 상용화

RAPA-퀄컴-뉴젠스-에릭슨 '맞손'

LG유플러스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퀄컴, 뉴젠스, 에릭슨과 5세대(5G) 기반 경량 사물인터넷(IoT) 기술인 '레드캡'의 상용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레드캡은 단말 기능을 간소화해 비용을 낮추면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 전송 성능을 유지하는 최신 IoT 기술 규격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인천 송도 IoT기술지원센터에 기술 인프라

를 구축하고 통신사 상용망 수준의 특화망 단말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중소 단말 개발사들은 신속하게 단말 성능을 시험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퀄컴과 레드캡 기술 검증과 연동 시험을 시행한다. 국내 최초의 통신사 주도 특화망 레드캡 실증으로 저지연·고신뢰 통신 환경이 로봇과 드론의 안정적 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 팩



인천 송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IoT기술지원센터에서 LG유플러스 직원들이 레드캡 기술로 연결된 드론을 시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토리, 물류 로봇, 스마트 계량기, 산업용 센서 등 다양한 현장에 레드캡 기반 특화망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서현 기자 seoh@

## KT '민:음 2.0', 韓 LLM 성능평가 국내 1위

전세계 동급 모델선 3위 수준

KT가 자체 개발한 '민:음 2.0'이 한국어 LLM(초거대언어모델) 성능 평가 플랫폼 '호랑이(Horangi) 리더보드'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KT는 지난 4일 공개한 KT의 자체 개발 모델 '민:음 2.0 베이스'가 한국어 LLM 평가 지표 '호랑이 리더보드'에서 파라미터 수 150억개 미만의 국내 기업 개발 모델 가운데 종합 성능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민:음 2.0 베이스의 종합 점수는 0.7197다. 세부적으로는 범용 성능 0.7004, 응답 정렬 성능 0.739로 평가됐

다. 전세계 동급 모델 중에서는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호랑이 리더보드는 글로벌 MLOps(머신러닝작업) 기업 웨이트앤바이어스(W&B)가 주관하는 한국어 특화 LLM 평가 벤치마크다. 실제 한국어 환경에서의 범용적인 언어 이해력과 응답 안전성을 포함하는 정렬성 등 한국어 LLM의 실용적인 역량을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민:음 2.0은 외산 모델을 기반으로 단순 튜닝하는 방식이 아닌, 아키텍처 설계부터 데이터 구축, 학습까지 전 과정을 KT가 직접 수행하는 '프롬 스크래치' 방식으로 개발한 순수 자체 개발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의미가 크다. /김서현 기자

## 티빙-SKT, 제휴 구독상품 'T 우주 티빙'

티빙 구독에 브랜드 혜택 더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티빙은 오는 15일 SK텔레콤과 함께 제휴 구독 상품 'T 우주 티빙'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T 우주 티빙'은 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 플랫폼 'T 우주'에서 티빙을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광고형 스탠다드(월 4500원) ▲스탠다드(월 1만2500원) ▲프리미엄(월 1만6000원) 총 3가지로 구성됐다.

'T 우주패스 위드 티빙' 이용자는 티빙 구독에 더해 메가커피, 배스킨라빈스 등 인기 브랜드 혜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요금제는 ▲광고형 스탠다드(월 5900원) ▲스탠다드(월 1만3900원) ▲프리미엄(월 1만6900원)으로 구성됐다.



티빙이 이달 15일부터 SK텔레콤과의 제휴 구독 상품 'T 우주 티빙'을 선보인다. /티빙

생활 전반의 실속을 챙기고 싶다면 'T 우주패스 편의점&카페 또는 쇼핑 G마켓/11번가'와 조합된 상품을 눈여겨볼 만하다. 세븐일레븐&투썸플레이스나 주요 쇼핑몰 혜택에 티빙 이용권이 합쳐졌다. 요금은 조합에 따라 달라지며 ▲광고형 스탠다드(월 9900원) ▲스탠다드(월 1만3900원) 또는 (월 1만4900원) ▲프리미엄(월 1만6900원) 등이 있다. /김현정 기자

#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개선권고 외면

대형사 절반 사실상 겸직 상태  
메리츠·KB 등 일부 변화 움직임  
당국 "내부통제 체계 확립 취지"



여의도 증권가.

/사진영기자 son@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귀를 닫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은 이사회 의장을 장원재 대표에서 이상철 사외이사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직 분리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KB증권은 김성현 대표에서 양원정 사외이사로, KB자산운용은 김영성 대표에서 장병화 사외이사에 이사회 의장직을 이양했다. 금감원의 권고 대상으로 꼽힌 금융투자회사 11곳 중 3곳만이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나누는 제도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책

임 주체를 특정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임원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금감원이 우선적으로 짚은 개선사항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과 '각자대표 체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상이 됐던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곳 중 25개사(47.1%)가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7곳 중 11곳(40.7%)이 겸직 중

으로 집계됐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교수는 "자금의 집행자와 결재자가 동일할 경우, 부패와 금융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직과 이사회 의장은 각자 분리해서 서로를 이중으로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중, 삼중으로 결재 단계를 분류하고 전문성을 부여해도 부정 한 사고는 재발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 체계를 형성해 사고를 예방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이관한 KB증권과 메리츠증권 외에도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최고경영자(CEO) 라인과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다. 사실상 대형사의 절반이 겸직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책무구조도 제도에 따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신설된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이해상충 해소방안을 마련했으며, 추가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대표이사 총괄관리 의무 감독과 관련한 이사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이해상충방지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는 대신에 하위 조직에서 관리·감독 구조를 보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증권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은 오너이자 CEO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가 겸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흐름에서 대신증권 역시 오익근 대표가 아닌 오너 3세 양홍석 부회장이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의 겸직을 개선하라는 권고는 내부통제 체계를 잘 만들어서 책무 구조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다"며 "오너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오너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의 취지는 권력 분산인데,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 이사회 의장에 합당한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향후 당국의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금융위,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예정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수천억 차익 의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여부 관심



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선임하고 IPO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방 의장이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정보를 숨긴 채 지분을 할값에 넘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사진)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해 수천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이브는 뒤늦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이달 초 대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권위)에 전달됐으며,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직전인 2019년 무렵, 일부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고지해 이들의 보유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PEF)에 매각하게 만든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당시 이미 상장의 필

문제는 이 PEF가 방 의장과 가까운 전직 하이브 간부들이 세운 펀드였다는 점이다. 방 의장은 해당 펀드와 '상장 후 차익의 30%를 나눈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결과적으로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중대한 이해상충 계약이 IPO 당시 증권신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자자보호 장치인 공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하이브는 2020년 13만5000원에 상장한 뒤 주가가 42만원까지 급등했으나, 해당 PEF가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며 단기간에 70% 가까이 급락했다. 보호예수 제도를 피하기 위해 우회 매각을 택한 정황도 뚜렷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대주주가 직접 팔 수 없는 상

황에서 펀드를 앞세운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부자의 구조적 설계에 의한 이익 편취, 공시 누락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방 의장의 정산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형 이상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첫 사례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거래소를 첫 방문지로 택해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연내 '액침형 냉각 ESS' 상용화 계획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리딩기업 목표

코스닥 기업탐방  
지투파워



지투파워 본사 전경.

태양광·ESS 등 전력설비 제조  
AI·빅데이터 기반 국내외 사업 확장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전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강소기업 지투파워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10년 창립 이후 중전기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아우르며 국내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한 회사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전력솔루션 기업으로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

지투파워는 초기 배전반, 태양광발전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설비 제조에 집중하며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2013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고,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조달우수제품 인증 등을 바탕으로 공급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전년보다 약 11.5% 증가한 550억7800만원, 영업이익은 36억5000만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22년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제2도약을 선언한 지투파워는 'AI 기반 스마트그리드 솔루션'이라는 차별화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투파워는 최근 AI 진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배전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고압·저압반에 자체 알고리즘을 적용해 부분방전(PD)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고 전기화재나 설비 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방전 패턴을 분석해 유지보수 비용은 줄이고, 예측 정확도는 높은 것이 강점이다.

ESS 분야에서는 절연 열화 상태를 AI로 진단해 화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정책에 대응해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액침형 냉각 ESS'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투파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요 경영방침으로 설정하고, 조직 내에 '해외사업본부'를 신설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략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지투파워의 최종 목표는 '에너지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스마트그리드 IT 솔루션 리딩 기업'이다. 이를 위해 ▲ 초격차 기술 개발 ▲ 글로벌 시장 확대 ▲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전략방향을 설정했다.

김영일 대표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인도,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지에서 배전반, 태양광 발전장치, ESS 등 해외 시장 진출과 함께 사업 확장 및 다각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창출, 신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전략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주주와 투자자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kdh@

##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개시

10년물·20년물 최고 가산금리 부여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7월 청약은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9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총 발행예정한도는 1400억원이다.

만기별로 발행예정금액은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규모다.

7월 개인투자용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에 각각 역대 최고 가산금리인 0.5%, 0.675% 부여됐다. 세전기준 만기수익률(연평균 수익률)은 ▲5년물 16.08% (연 3.21%) ▲10년물 39.47% (연 3.94%) ▲20년물 98.90% (연 4.

94%) 수준이다. 가산금리가 포함된 해당 수익률은 만기 보유시에만 적용된다.

지난 3월 제도 개선으로도입된 개인투자용국채 5년물은 4개월 연속 초과 청약이 기록됐다.

5년물 기준 청약률은 3월 약 191%, 4월 약 164%, 5월 약 158%, 6월 약 121%에 달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체불·산재·불법고용 전방위 점검 10개 종합건설사 '통합감독' 착수

## 고용부, 취약현장 노동권 점검

하도급 불공정 관행 실태 조사  
50억 이상 대형 현장까지 확대  
외국인 불법고용도 단속 대상  
관계부처 협업 통해 구조 개선

고용노동부가 최근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산재·외국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총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이 실시한다.

합동 감독팀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분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



권창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장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 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갖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재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범정부 협의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과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폭염 속 기습폭우 대비 하천 현장점검

환경부, 근로자 안전도 등 강조

환경부가 폭염 속 여름철 침수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9일 금한승 차관이 청주 미호강 강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 및 청원구 일대의 빗물받이 청소·준설 작업 현장을 방문하고 빗물펌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 차관이 점검한 미호천 강외 지구 하천정비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 합류부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하천 폭을 늘리는 사업이다.

미호강은 지난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며 범람해 청주 오송읍 공평2지하차도를 덮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가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업으로 미호강의 신설 제방을 축조하고 기존 제방을 철거해 미호

강과 합류부의 하폭이 확대되면 홍수위가 최대 0.63m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 차관은 펌프장의 운영을 살피고,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 등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에는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추락방지시설의 빠른 설치를 주문할 예정이다.

또 지속되는 폭염으로 야외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도 신경 쓸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 차관은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지만 여름철에는 기후변화의 여파로 언제든지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부터 작은 빗물받이와 맨홀 하나하나까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농식품부,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길 튼다

### 'UN전문가 초청' 실무 설명회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실무설명회가 열린다. 특히, 행사에 초청받은 유엔(UN) 산하 농업분야 조달전문가들이 자문 역할을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비료·윤실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국제 조달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로마 본부의 농업담당관과 기술고문, 국제농업개발기금선임조달담당관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UN 산하 농업기구의 조달시장 동향, 분야별(비료·시설하우스 등) 기술 규격, 참여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조달청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관계자도 연사로 나서 해외 조달시장 전반 동향과 유엔 조달 통합 플랫폼(UNGM) 활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개별 해외 정부·기관보다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해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출선 고정 확보뿐 아니라 납품지역과 인근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초청설명회를 계기로 해외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농산업 수출 기업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수출기업 관세대응 역량 강화 나선다

### 산업부·코트라, 바우처 행사 개최 통상피해 분석·시장정보 종합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운영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된 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 르웨스트홀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코트라

업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이 공유됐다.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 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 체험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산기평, '대구·경북' AI·SW 인재 육성

### 경북대·대구대·경북연구원과 협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9일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지역의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AI시대를 맞아 대구·경북 지역산업 고도화와 미래 첨단

기술 기반 형성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인력양성·연구성과 공유 등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KEIT는 2015년부터 AI분야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공정자동화·품질관리·예측 정비스마트 로봇 등 제조 현장의 고도화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끌고 있다. 또 의료·복지·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해 산업 간 융합 촉진을 지원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AI·SW분야 연구성과 및 콘텐츠 공유 ▲국내외 연구동향 정보 교환 및 활용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협업 ▲시설·장비 등 인프라 상호 활용 ▲기타 AI·SW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윤중 KEIT 원장은 "AI·SW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현재의 핵심기반"이라며 "대구·경북이 AI·SW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 검역본부, 꿀벌 보호 공동연구 성과 공유

### 5개 부처 기후변화 대응 중간 발표

꿀벌 보호를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강화된다. 이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개체수 급감 대응의 일환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서울대에서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5개 부처) 공동연구사업' 성과공유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 세계 농작물 생산량의 약 35%가 수분 매개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꿀벌은 핵심 수분 매개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 온난화, 살충제 사용, 서식지 파괴, 꿀

벌 응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부처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48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꿀벌 보호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꿀벌질병 진단·제어기술, 스마트 양봉관리, 밀원수종 개발, 화분매개 생태계서비스 증진 등 각 기관 중점 추진 연구의 중간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꿀벌 질병 진단 및 제어 기술 개발을 핵심 임무로 ▲행동이상 증상 꿀벌 현장감별 유전자 진단법 개발 ▲꿀벌 스트레스 지표발굴 및 관리 기술 연구 ▲꿀벌 봉군소실 및 행동이상에 대한 꿀벌응애와 관련된 바이러스 영향 조사 등을 발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워너 에어컨 18+6평  
 월 63,900원  
**월 46,900원**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 18평  
 월 51,900원  
**월 34,900원**



삼성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7,900원 → **월 900원**



삼성 AI Q9000 에어컨 17평+6평  
 월 63,900원  
**월 46,900원**



삼성 스탠드 에어컨 17평  
 월 51,900원  
**월 34,900원**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8,500원 → **월 1,500원**

일시용으로 ~~안 샀다~~  
 헬로렌탈로 **잘 샀다!**

**에어컨**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 표기된 월 요금은 LG헬로비전 국민카드 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17,000원 할인 적용가 (-24개월)  
 ※ 본 광고의 내용은 가전사 사정에 의해 모델명, 가격 (2025.06.01 기준), 외관이 변경되거나 조기 단종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 가속화... 성과 기반 책임경영 강화

공공기관 통합지침 첫 제정  
인사·조직 효율화 본격 추진  
성과연동제·재정진단 도입  
도민 체감형 혁신 모델 구축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2차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신속한 혁신 추진을 주문했다.

경북도는 8일 도청 화백당에서 '제2차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며 흔들림 없는 신속한 혁신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도청 확대간부회의와 병행해 열렸으며,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혁신 전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수립하고, 도지사주재 전략회의와 4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율책임 경영 ▲인사조직예산 효율경영 ▲공공ESG경영 등 3대 분야 8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추진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광역 최초 '공공기관 혁신 통합지침' 제정 ▲통폐합 기관 조직·기능·인력 정비 ▲인사운영 개선 및 복리후생 강화 ▲재정구조 및 예산운영 체계 개선 ▲도청-공공기관 간 교류 협력 활성화 ▲성과 중심 책임경영 확대 ▲저출생 극복 및 가족친화 경영 강화 등 7개 분야에서

가시적 결과를 내고 있다.

특히 도는 각 기관 운영의 기준을 마련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통합지침'을 제정해, 경영평가와 성과급 연계를 통해 실질적 개선을 도모했다. 통합합 이후 이원화된 인사·보수 체계를 일원화하고, 경북문화재단과 경북행복재단 등은 조직 효율화를 위한 회계·정책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

인사 부문에서는 승진 연수 단축, 표준 직급체계 정비, 장기근속자 보수 강화 등 복리후생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공공기관 이직률 문제 해결과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도는 공공기관 인사 교류를

처음으로 도입해 실무자 간 역량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고졸 인재 채용제도 확대, 도청-공공기관 공동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행정 일체감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재정분야에서는 자체 수입 목표제, 출연금 조정제, 불필요 기금 정리 등을 통해 자율책임형 재정 구조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재정진단 모델을 마련해 체계적 운영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연동제도 도입된다. 기관장 연임평가와 기본연봉 차등, 우수기관 임직원 성과급 상향, 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성과 보상이 이뤄진다.

공공ESG 영역에서는 저출생 대응과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해 13개 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했고, 육아·돌봄 업무 대체자에 대한 수당 상향 등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경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기능 및 재정진단 평가를 시행하고, 중복 기능 조정과 혁신 이행 여부를 다음 연도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와 공공기관은 한 몸이 되어 도민 중심의 행정을 이끌고, 지역과 함께하는 경영과 혁신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 공공기관의 표준모델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안동시

#### 'K-Food' 특별전 개최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정신문화재단과 한식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교류 기획특별전 '수문잡방에서 K-Food까지'가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끼마을 근민당 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 개관식은 7월 11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동'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울 북촌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성황리에 열린 특별전을 안동으로 옮겨 더 풍성한 콘텐츠로 재구성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 완도군

####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

고운 모래와 해상 숲, 탁 트인 청정 바다를 자랑하며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전남 완도군의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오는 12일 개장하며 다음달 17일까지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신지 명사십리 외 보길 중리 등 10개소는 25일 개장한다. 군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모래조각 전시, 비치발리볼 대회, 플라야보드 쇼, 버스킹 공연 등 '해양치유와 바캉스'를 접목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특히 7월 12일, 신지 명사십리 개장일에는 '완도, 치유의 파도길을 걷다! 바다를 품다!'를 부제로 전국 맨발 걷기 축제가 개최된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전남도

#### 노후주택 5000 가구 화재 점검

전남도는 최근 부산에서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복지기동대와 전남소방본부가 합동으로 지역 내 노후주택 긴급 화재예방 점검과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9월 6일까지 2개월간 5000가구 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노후 콘센트 교체, 노후 전선 정리, 자동소화 멀티탭 설치, 소방시설 점검, 화재예방 교육 등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창원시

#### 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창원특례시가 8일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도비 확보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규현 의회운영위원장,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 등 창원지역 16명의 도의원이 참석해 2025년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핵심 전략과 주요 건의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진행했다.

시는 국정 과제화 공조에 동대구청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AI 자율제조 전담지원센터 구축, 진해신항 트라이포트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12건을 제시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 경주시, 폭염·태풍 대응체계 가동

소방 순찰·예찰 활동 병행 추진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강조된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기조에 따른 것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운영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7일 기준 경주지역의 누적 열질환자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60~80대 고령층이 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발생 장소는 논밭·실외 작업장·길가 등 야외에 집중됐다.

경주시는 낮 최고기온이 36도를 넘



경주시 보건소 관계자가 마을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폭염 대비 건강관리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나들고 열대야도 이어지는 가운데, 민감계층별 맞춤형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폭염 취약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작업 자제를 유도하고, 소방 사이렌을 활용한 순찰 및 예찰 활동도 병행 중이다. /경북(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포항시, 맞춤형 공무원 복지제도 추진

일·가정 양립 제도화 속도

포항시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사회 문화 혁신과 함께 맞춤형 복지 제도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수립한 '일·가정 양립 근무여건 개선 계획'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를 통해 개인의 삶과 가족, 일터를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휴가제도 신설이다. '보육휴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5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됐다. 또 '교육지도시간' 제도를 통해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1일 최대 2시간의 학습지도 시간도 부여된다. 이는 기존 육아시간이 초·중·고등학교까지만 적용되던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MZ세대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도 포함됐다. '새내기 도약 휴가'는 재직 1년 이상 6년 미만의 직원에게 주어지는 3일간의 특별휴가로, 상대적으로 연차가 적은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 부산시, 민관 나눔활동 공로자 포상

기업·단체 등 총 56명 표창

부산시는 8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희망2025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상 유공자와 박형준 시장, 이수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이강국 시 부교육감, 김진홍 동구청장, 오은택 남구청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언론사 간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희망2025 나눔 캠페인을 비롯해 2024년 나눔문화

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시장 표창 18개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표창 38개 등 총 56개의 표창이 수여됐다.

주요 유공자로는 코로나19 시기부터 백미와 이웃돕기 성금을 꾸준히 기탁해온 개미집 본점, 재해재난 기부와 취약계층 복지 물품 지원을 실시한 신앙촌소비조합, 2018년 설립 후 지역 상생과 인재 육성, 환경 보호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선정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양산 도시철도 국비 120억 추가 확보

경남도, 올해 총 656억 편성

경남도가 2025년 정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체제 하에서 경남도와 양산시가 노력해 일귀년 이번 추경으로 올해 건축공사 및 SE공사 완료가 가능해져, 내년도 하반기 양산도시철도 전면 개통에 더 탄력이 붙었다.

2025년 국비는 추경 120억원 증액을 포함해 656억원이 확보됐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부터 양산 사송택지지구를 거쳐 북정동을 잇는 길이 11.43km, 정거장 7개, 차량기지 1개소, 총사업비 7963억원 건설 사업으로,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과도 연결된다.

2011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2015~2018년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2018년 착공해 현재 전체 공정률은 89%이며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7개월간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中 공략 '투트랙'... 패션업계, 업황반등 기대

하반기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  
K패션 중심 외국인 수요 늘어날듯

**이랜드월드** 홍대 폴더매장 리뉴얼  
**자라** 명동매장 672평 규모 확장  
**무신사** 하반기 中 상하이 진출  
**신세계인터** '아이엠'으로 中 공략



한 의류 매장 쇼윈도에 옷가지가 진열돼 있는 모습. /뉴시스

불황을 이어가던 패션업계가 하반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으로 인한 업황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국내 패션 기업들은 외국인 관광객 맞이에 나서는 동시에 중국 시장 진출 공략에 나서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하반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계획을 밝히면서, K패션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고객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간 국내 패션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이상기후 등의 요인으로 실적 부진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1분기 신세계인터내셔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58.3% 감소했다. 코오롱FnC 역시 1분기 영업손실 7억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2.5%, 36.8%씩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하반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으로 대거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면서, 업

계 일각에서는 소비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K패션 수요가 업계 기대를 이끄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패션 의류 품목의 수출 추이는 1월 마이너스(-) 23.5%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다, 2월(3.3%), 3월(-0.1%), 4월(8.7%), 5월(0.1%), 6월(15.8%)로 성장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이미 성수, 홍대, 명동과 같은 상권에만 가도 알 수 있듯이, K패션을 찾는 외국인 수요가 크다"며 "여기에 하반기를 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된다면, 앞으로 K패션 시장은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대비한 상권 재 정비에 나서는가 하면, 중국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랜드월드는 올해 초 홍대에 있는 폴더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1층 쇼핑 공간을 확장하고, 브랜드 상품 기획(큐레이션) 영역을 강화했다. 홍대 상권은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수 방문하는 곳 중 하나로, 홍대 매장을 리뉴얼 오픈해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는 명동 상권을 공략한다. 자라는 지난 5월 명동 눈스퀘어 매장을 약 672평 규모로 확장하고, 온·오프라인 연동 시스템을 도입했다. 동시에 매장 3층에는 한국 전통

'돌담'을 배경으로 한 카페테리아 '차카페'를 열었다.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쇼핑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무신사는 지난달 '2025 무신사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중국 상하이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계획을 밝혔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필두로 해외 판로를 지속해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역시 자체 헤어케어 브랜드 '저스트 에즈 아이엠'(이하 아이엠)을 앞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세계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아이엠은 지난해 중국 틱톡샵에 첫 입점했는데, 대표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올해 틱톡샵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며 "앞으로 제품군을 지속 확대하고 중국 등 해외 채널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백화점, 중고패션 제품 포인트 교환해 준다

현대백 '바이백' 서비스 도입  
마들렌메모리 상품수거, 내달 재판매  
롯데백 '그린 리워드 서비스'  
151개 브랜드 취급... 엘포인트 제공

국내 백화점들이 중고 패션 상품을 수거해 자사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9일 현대백화점은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중고 패션 보상 프로그램 '바이백'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바이백 서비스는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패션 상품을 자사 통합 멤버십 H포인트로 교환해 주는 제도다. 포인트는 상품의 중고 시세에 맞춰 금액이 산정되며, 현대백화점·아울렛·더현대닷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더현대

닷컴에서 판매 신청 후, 상품을 박스에 담아 문 앞에 두면 된다. 이후 현대백화점과 협업한 리세일 스타트업 '마들렌 메모리'가 상품을 수거하고 검수를 진행한다.

한편, 바이백 서비스가 취급하는 브랜드는 현대백화점과 더현대닷컴에 입점해 있는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130여 개다. 마들렌메모리 측은 고객을 통해 매입한 중고 상품을 내달부터 자체 웹사이트에서 재판매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역시 이달 11일부터 중고 패션 제품을 엘포인트로 교환해 주는 '그린 리워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한다.

서비스 이용 고객은 롯데백화점 애플리케이션 내 '그린 리워드 서비스' 탭에서 중고 제품 정보를 입력하고 수거 주소 등록하면 된다. 이후 택배 기사가 직접 방문해 제품을 수거한다.

총 151개 패션 브랜드가 서비스 취급

대상이며, 보상은 롯데백화점 멤버십 포인트인 엘포인트로 제공된다. 브랜드와 품목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지며, 특히 고가 제품일수록 보상 금액이 높게 책정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같은 백화점들의 중고 패션 교환 서비스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중고 거래(리세일) 문화가 확산되는 흐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중고 패션 시장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향후 3년간 연평균 48.7%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롯데백화점 박성철 대외협력부문장은 "그린 리워드 서비스는 단순한 보상 프로그램을 넘어 고객과 함께 만드는 순환 소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자원 순환 문화 확산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소비 방식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 롯데마트, 먹거리 초저가 '제철 한상 기획전'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행

롯데마트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여름 먹거리를 초저가로 구성한 '제철 한상 기획전'을 진행한다. 9일 밝혔다.

먼저, 롯데마트는 10일부터 12일까지 '상생 파프리카'를 행사 카드 결제 고객 한정 저가에 제공한다. 상생 파프리카는 일반 원물보다 크기는 작지만, 맛과 당도, 영양은 동일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롯데마트는 농가 소득 확대에 기여하고자 전복 감제에서 총 30만 개의 상생 파프리카 원물을 매입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생육 기간이 짧아 소형 파프리카가 다량 출하되지만, 일반 크기보다 수요가 낮은 데다 수출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농가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롯데마트 제타플러스점 잠실점 채소코너에서 상생 파프리카를 홍보하는 장식진 상품기획자(MD)의 모습. /롯데마트

파프리카 외에도 다양한 여름철 먹거리 행사를 진행한다. 제철 상품으로 '상생 복숭아', '성주 상생 참외', '미국산 체리' 등이 마련됐다.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용 영계', '닭다리 두배 닭볶음탕', '요리하다 강화섬계탕' 등 다양한 보양 먹거리도 준비됐다. /안재선 기자

## 형지글로벌, 연내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

사업 확장·스테이블코인 본격화 행보

패션 전문기업 형지글로벌이 올해 하반기 내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사업 확장과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자산 사업 본격화를 위한 행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형지글로벌에 따르면, 이번 싱가포르 신규 법인은 형지글로벌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 '까스텔바작'의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싱가포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

이다. 이와 관련해 최준호 형지글로벌 부회장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벵저'와 'DBS은행' 관계자들을 각각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지글로벌은 혁신적인 디지털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가 마련된 싱가포르에서 스테이블 코인 '형지코인'을 발행하고, 결제 시스템 '형지페이' 도입에 나선 바 있다.

한편, 형지글로벌은 전 세계 10여 개국에 유통망을 가진 싱가포르 의류 브랜드 '크로커다일 인터내셔널'과도 협업을 강화한다. 고객 접점 확대 및 디자인·마케팅·지역별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 삼양식품 까르보불닭 납작당면 첫 선

삼양식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닭' 브랜드의 폭발적인 인기로 힘입어 신제품 '까르보 불닭 납작당면(사진)'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납작당면은 쫄깃한 식감으로 국내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앞서 선보인 '로제불닭 납작당면'은 편의점에서 '로제불닭볶음면' 대비 16% 이상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납작당면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입증했다.



/신원선 기자

## 롯데웰푸드, 인도서 빼빼로 생산·판매 돌입

330억 투입 현지에서 생산라인 건립

롯데웰푸드는 인도 자회사 '롯데 인디아(LOTTE India)' 하리아나 공장에 빼빼로 생산 라인 건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현지 생산 및 판매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1월 인도법인 롯데 인디아 하리아나 공장에 빼빼로 생산라인 도입을 위해 약 330억 원(21억 루피)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완성된 라인은 빼빼로의 첫 번째 해외 생산기지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 인도 시장 공략은 물론 주변국 수출을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하리아나 빼빼로 라인을 통해 롯데웰푸드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자 약 17조

원 규모의 거대 제과 시장인 인도에 빼빼로를 처음 선보인다.

초콜릿 수요가 높은 인도 시장 특성에 맞춰 '오리지널 빼빼로'와 '크런키 빼빼로' 2종을 우선 출시한다. 수도인 델리 지역을 시작으로 인도 전역에 순차적으로 분포될 예정이며 대형마트, 이커머스, 시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 입점할 계획이다.

인도 빼빼로는 현지 기후와 원료 상황을 고려한 배합 개발에 신경썼다. 인도의 고온다습한 날씨에서도 초콜릿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많은 배합 테스트를 거쳐 초콜릿 특유의 맛과 풍미는 유지하면서도 40°C의 높은 온도에서도 녹지 않도록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사람도, 강아지도 맞춤 관리”... ‘반려 라이프’ 동반 공략

## K-뷰티업계, 펫 시장 고도화

**LG 세탁세제·탈취제 전용 선택  
애경 피부·구강 제품군 7종 확대  
더파운더즈 알레르기 영양제 출시  
네오팜 귀 세정제·샤워기 선보여**

국내 K뷰티 브랜드 기업들이 반려동물부터 반려인까지 정조준하며 제품 다각화는 물론, 반려동물 시장 고도화에 나선다.

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펫 패밀리’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펫 패밀리는 LG생활건강이 지난 1월 새롭게 공개한 브랜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선보이는데 중점을 둔다.

LG생활건강은 펫 패밀리 신제품으로 ‘펫 메스 리무버’를 출시한다.

펫 메스 리무버는 반려동물의 분뇨, 분변, 분비물 등으로 인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다. 곡물 유래 에탄올을 함유해 강력한 세정력을 갖췄고, 소변 냄새, 동물 비린내에 적합한 탈취 기능도 더해졌다. 침구, 화장실 타일 등 오염 부위에 뿌린 후 닦아내면 된다. 반려동물 옷이나 장난감에도 사용 가능하다.



펫 패밀리 신제품 ‘펫 메스 리무버’ /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앞서 펫 패밀리 첫 제품으로는 세제 브랜드 피지의 제조 노하우를 담아 ‘피지 펫-패밀리 세탁세제’, ‘피지 펫-패밀리 세탁조 클리너’ 등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제품들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며 ‘세탁 문제’로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소비자를 공략한다.

피지 펫-패밀리 세탁세제는 반려동물에서 유래한 기름 왁스 성분을 제거해 준다. 기름 왁스는 동물 피지 성분으로, 털 부착과 냄새의 원인으로 꼽힌다. 피지 펫-패밀리 세탁조 클리너는 세탁조



포앰 ‘릴렉싱 브러쉬 샤워기’ / 네오팜

에 남은 동물 털을 청소하는 제품이다. LG생활건강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 가족의 삶을 반영한 제품을 기획하고 있어, 펫 패밀리가 반려 가족 필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애경산업도 지난 4월 기존 브랜드 ‘휘슬’을 단순 펫케어 브랜드에서 반려 라이프 브랜드로 재단장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브랜드를 설계한 것이다.

실제로 휘슬을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동물 복지를 강화한 브랜드 가치관을 표현했다. 브랜드 색상인 청록색은 두 가지 색만 구분하는 이색형 색감을 가진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색을 구현한 것이다. 곡선 형태의 브랜드 로고는 반려동물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다.

휘슬 신제품 7종은 반려동물 생애 주기 맞춤형 제품으로 구성됐다.

우선, 샴푸는 민감성 피부를 위한 ‘허브4 약용 샴푸’, 강아지 털을 관리하는 ‘샤이닝 실키 윤기 샴푸’, 보습 성분을 함유한 ‘퓨어 모이스트 수분 샴푸’ 등 총 3종이다. 반려동물 피부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구강관리 용품도 치약부터 칫솔까지 총 3종이다. 위생 용품인 ‘펫볼 버블 워시’는 동물 침, 사료 잔여물 등을 세척해 세균 번식을 예방해 준다.

애경산업 측은 “현대사회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상생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맞춤형 제품을 더욱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디 뷰티 브랜드 기업들도 반려동물 헬스케어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신생 K뷰티 브랜드 ‘아누아’ 등을 운영하는 더파운더즈는 반려동물 건강 전문 브랜드로는 프로젝트21을 전개하며,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출신 수의사 등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다. 프로젝트 21의 ‘알러 릴리프 디마 케어’는 강아지 피부 영양제다. 각질, 붉은 기, 발사탕 증상 등 반려견의 다양한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알러지 개선 효능 원료를 처방했다.

네오팜의 ‘포앰’도 뷰티 노하우와 기술을 반려동물용으로 상용화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어 클리너’, ‘브러쉬 샤워기’ 등 차별화된 제품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인다. 이어 클리너는 반려동물 귀속 노폐물과 귀지를 제거하는 제품으로 동물 귀 구조와 귀속 피부에 특화됐다. 브러쉬 샤워기는 촘촘한 동물 털을 빠르게 행귀준다.

네오팜 측 관계자는 “네오팜은 피부 장비에 최적화된 연구개발로 K뷰티 영역에서도 제품력을 인정받아 왔고,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종근당건강, ‘청매실 팩습’ 뷰티 플랫폼 석권

**네이버·무신사에서 나란히 1위  
모공·각질 개선 등 효과 입증  
청매실 성분으로 해외 공략**

종근당건강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씨케이디 청매실 팩습 클렌저’가 출시하자마자 실시간, 일간, 주간 판매 1위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에서 해당 제품 첫 공개 5일 만에 판매 1위에 올랐다.

청매실 팩습 클렌저는 종근당건강이 운영하고 있는 피부건강기능화장품 브랜드 ‘씨케이디 개런티드’의 신제품이다. 국산 원료에서 영감을 받아 국내 광양산 청매실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씨케이디 청매실 팩습 클렌저’ / 종근당건강

이 제품은 세안, 팩, 스킨케어 등 3단계 기능을 한 데 갖췄다. 쫘득한 제형이

모공 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각질을 관리해 준다. 오에이티씨 피부 임상시험센터에서 진행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1회 사용으로 모공 속 노폐물 세정률이 99.8%에 달하는 결과를 얻었다. 4주 사용 후 각질 개선율은 94.4%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근당건강 조영한 화장품사업부장은 “한국 고유의 K성분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개념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을 확인했다”며 “덥고 습한 여름철에 더욱 부각되는 피부 고민을 공략해 말끔한 클렌징과 매끄러운 피부에 특화된 제품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에스티젠바이오, 해외공급 확대 본격 시동

‘인터팩스 워크 도교’ 참가

에스티젠바이오가 오는 1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 ‘인터팩스 워크 도교 2025’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에스티젠바이오는 3년 연속으로 단독 부스를 운영하는 등 글로벌 관계자들과 적극 교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9년도부터 일본 시장에 상업용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적,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 실사를 동시에 통과한 세계적 수준의 품질 경쟁력 등을 알린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도 소개한다. 에스티젠바이오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배양 시설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다품종을 유연하게 생산하기 위한 세포 배양시설(하베스트)을 확충한다.

또 신규 무균 충전 설비도 도입해 연간 생산 능력을 2800만 PFS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 35kL 규모의 제2공장 건설 가능성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최근 한 달 동안은 6월 99억원, 7월 47억원 등 총 140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이청하 기자

## 보령, LBA 전 품목 자사생산 전환

**젼자·자이프렉사·알림타 전환  
제형 개선·CDMO 전략 병행**

보령이 비소세포암 치료제 ‘알림타’의 자사 생산 전환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보령은 레거시 브랜드 인수(LBA) 전략을 통해 인수한 글로벌 오리지널 의약품 3개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제조경쟁력과 수익성 모두를 강화하게 됐다.

LBA 전략은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은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 후, 해당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령은 LBA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로부터 2020년 함암제 ‘젼자’, 2021년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 2022년 ‘알림타’ 등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국내 권리를 순차적으로 인수, 내재화하는데 집중해왔다.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젼자는 2020년 인수 당시 143억 원이던 연간 처방액이 지난해 29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자이프렉사는 지난해 167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알림타는 2022년 210억원에서 2024년 269억원으로 28% 성장했다.

보령은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 예산캠퍼스

내 세포독성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2023년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EU-GMP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보령은 지난 2024년 대만 제약사 로터스(Lotus)와 CDMO 계약을 통해 오리지널 함암제 수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형을 개선해 LBA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보령은 분말 형태의 동결건조 제형이었던 기존 알림타를, 액상 제형으로 바꾼 ‘알림타 액상주’를 이 달 출시했다. 앞서 2023년에도 함암제 ‘젼자’를 액상 제형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 제품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젼자 판매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동아제약, 치아교정기 세정제 ‘클리덴트’

구강 세균 99.9% 살균 입증

동아제약은 치아교정기 세정제 ‘클리덴트’(사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클리덴트는 특허 받은 천연 유래성분을 함유해 얼룩 플라그 제거, 미백, 살균 및 미백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살균력 테스트에서 해당 제품 사용 5분 후, 진지발리스균, 뮤탄스균, 칸디다균, 인터미디아균 등 구강 세균 4종을 99.9% 살균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파라벤, 셀레이드계 계면활성제 등 17종을 무첨가해 안정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폼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교정기에 사용 가능하며, 교정기에 3~5회 펌핑하여 세정품을 골고루 도포 후 5분 경과 후에 물로 헹구우면 된다. 용량은 50

mL와 150mL로 구성됐다.

치아교정기에는 각종 음식물과 외부 유해균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치아 교정기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주방세제와 치약으로 세척할 경우, 계면활성제와 연마제로 인해 치아교정기가 손상될 수 있어 전문 세척제 사용을 권장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치아를 교정하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며 치아 교정기 세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클리덴트’가 올바른 치아 교정기 관리에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7월 22일(화) 오후2시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주제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 일시 2025년 7월 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 달러약세와 지배구조 개선이 가져올 한국증시의 변화
강연	14:50~15:30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 : 글로벌 자산배분과 리스크 대응형 포트폴리오
	15:30~16:1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내 집은 자산일까, 부채일까? 초고령사회에서의 주거전략과 부동산 시장 전망
	16:1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트럼프 2기와 스테이블코인: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연사 소개



**김학균**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장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박희운**  
-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  
- KB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정재훈**  
-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민승**  
- 코빗 리서치센터 설립 멤버 및 리서치센터장  
- 다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 업무 수행



**캠코, 부산지역 보호 아동·자립준비 청년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개보수 및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해 1억2000만원의 기부금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정정훈 캠코 사장(왼쪽)은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가운데)에게 기부금을 직접 전달했다. /캠코



**에코프로, 국립공원 생물 다양성 보전 나서**

에코프로는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와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외래식물 제거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에코프로 최상은 부사장, 국립공원공단 김대현 중부지역본부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코프로



**hy, 육군 25사단에 2000만원 상당 위문금품 전달**

hy는 전날 육군 제25보병사단(이하 25사단)을 방문해 총 20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hy 방문단은 25사단 관할 상승전망대와 최전방 GP를 탐방한 뒤 부대로 이동, 한기성 25사단장을 비롯한 군 간부와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문금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hy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서 환경클래스 진행**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1~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로 '더북한강R점'에서 자연환경국민선학과 손잡고 고객 250명과 함께 하는 환경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환경 클래스는 지난 5월 더북한강R점이 소재한 남양주 일원에 새롭게 준공된 '수풀로 금남리' 수변녹지 조성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고객 참여 클래스다. /스타벅스



**NHN클라우드-네트러닝, 교육콘텐츠 서비스 고도화**

엔에이치엔클라우드(NHN 클라우드)는 일본 기업 네트러닝 홀딩스와 교육 콘텐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트러닝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교육 콘텐츠와 데이터가 NHN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된다. (왼쪽부터)네트러닝 키시다 토오루 회장과 NHN 클라우드 김동훈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NHN클라우드

# LG전자, 김아영 구겐하임 전시에 '올레드 TV' 지원

**'존재의 부드러운 기하학' 설명회 77형 올레드 에보 6대로 대표작 '딜리버리 댄서' 구현**

LG전자의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무대에 올랐다.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인 김아영 작가의 작품 설명회에서 디지털 캔버스로 활용되며,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김아영 작가의 작품 설명회 '존재의 부드러운 기하학'에 자사 올레드 TV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는 구겐하임 미술관 내 원형 극장에서 열렸다. LG전자 77형



LG전자의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김아영 작가의 작품 설명회 '존재의 부드러운 기하학'의 예술 작품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위 사진은 (왼쪽부터) 마리엣 웨스터만 구겐하임미술관장 겸 최고경영자(CEO), 허철호 LG전자 북미법인 상무, 김아영 작가, 넷 트로트먼 구겐하임 큐레이터가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올레드 에보(evo) 6대가 무대 양측에 세로로 각 3대씩 배치돼 김 작가의 대표작 '딜리버리 댄서' 시리즈를 생생하게 구현했다. 화면 속 주인공들이 바이크를 타고 가상 도시를

질주하거나 도시를 떠다니는 장면은 압도적인 화질로 표현돼 관객의 몰입감을 높였다.

LG 올레드 TV는 완벽한 블랙 표현과 정밀한 색 재현을 강점으로 한

다. 이번에 전시된 2025년형 모델은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으로부터 '퍼펙트 블랙', '퍼펙트 컬러' 인증을 받았다.

김아영 작가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예술적으로 해석한 독창적인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했다.

LG전자와 구겐하임 미술관은 2022년부터 'LG 올레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LG전자는 앞으로도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이어가며 올레드 기술의 예술적 가치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중진공, 전국 연수원 집중개방

내달 14일까지 6개 연수원 개방 강의장·강당 등 전 시설 이용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국에 있는 연수원을 전 국민에게 집중개방한다.

9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중소벤처기업(안산), 강원(태백), 충청(천안), 호남(남주), 대구경북(경산), 부산경남(진해) 총 6개 연수원을 개방한다. 다만 태백에 있는 강원연수원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으

로 한정하기로 했다.

연수원 집중 개방은 공공 연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연수원 개방 기간에는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인원을 늘리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물도 제공한다. 개방시설은 강의장, 강당, 운동장, 기숙사 등 연수원 전 시설이다.

중진공 연수원 이용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지씨셀,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특별강연

"일상 업무 속 보안 중요성 체감"

GC녹십자계열 바이오 기업 지씨셀은 내부적으로 제정한 '준법의 달'을 맞아,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 전문가협회장을 역임 중인 박재현 HM Company 상무가 특별 연사로 초청됐다. 박 상무는 '정보는 기억한다, 흔적은 말한다'는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안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보이지 않아도 남는 디지털 흔적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정보 추적 원리 ▲AI 기술 확산에 따

른 신종 위협 ▲작은 실수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 사례 ▲조직 내 보안을 지키는 실천적 습관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소개했다.

지씨셀 김재왕 대표이사는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 업무 속 보안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질적인 보안 습관을 내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정보보안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철저한 보안 실천을 통해 회사의 신뢰를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현대제철, 흑서기 작업장 안전강화

자회사·협력사 14곳과 상생협력

현대제철이 연일 최고기온을 경신하는 폭염 속에서도 '안전한 100년 제철소'를 목표로 자회사 및 협력사와 손을 맞잡고 흑서기 작업장 안전 강화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9일 충남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자회사 및 협력사 14곳과 함께 '하나의 안전까지 추구(Hyundai-Steel One Safety)'라는 안전경영 슬로건 실현을 위해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제철은 자

회사 및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참여자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과 안전문화 정착 ▲현장 위험요인 적극 발굴·개선과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 작업 절차 준수 ▲안전수칙 준수 및 기초안전질서 실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 직후에는 현대제철 SHE(안전·보건·환경)본부장 고흥석 전무 주재로 '상생협력 안전보건 간담회'가 열렸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제주항공 '하늘길 그림 그리기 대회'

내달 1일부터 2주간 열려

제주항공이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2주간 '제9회 하늘길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늘길 그림 그리기 대회'는 만 5세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 승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행사로 가족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항공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늘길 그림 그리기 대회는 ▲인천/부산~보홀 ▲인천/부산~세부 ▲인천~푸꾸옥 ▲부산~다낭 노선에서 '제주항공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행복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기내에서 제공되는 도화지와 색연필을 이용해 목적으로 향하는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 객실승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제주항공 대표이사상장과 함께 ▲금상(1명) 국제선 왕복항공권 4대 ▲은상(3명) 국제선 왕복항공권 2대 ▲동상(5명) 국내선 왕복항공권 2대를 부상으로 준다. 결과는 오는 9월 2일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용 기자

## 티웨이항공, 중학생 항공 진로체험 진행

속초양양 지역 학생과 '크루 클래스'

티웨이항공은 지난 8일 서울 김포공항에 위치한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속초양양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항공 진로 체험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크루 클래스(Crew Class)'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크루 클래스에는 속초 해양

중학교 학생 30명을 초청해 진행했으며, 실제 객실승무원이 받는 훈련 환경에서 기내 안전 절차와 객실 서비스 절차 등을 직접 체험하며 항공 분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교육은 현지 객실승무원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 훈련 교관의 지도하에 진행됐으며 항공 안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승용 기자

### 인사

◆충남 태안군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도시교통과장 가운선 △의료관리과장 김장호 △환경관리센터 소장 이근희 △원북면장 전진봉

### 부음

▲장정순(향년 90세)씨 별세, 박효성(익산시 비서실장)씨 장모상 = 8일, 전북 전주 대송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고창군 선영. 063-274-4300

# 인공혈액과 축각로봇 기술



연운열의  
푸드톡톡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본격화된 인공지능(AI) 시대는 식품산업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식물성 재료 기반의 대체육(plant-based meat) 개발은 지속가능한 식량 확보와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체육이 진짜 고기처럼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맛과 질감'이라는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디지털 센서에 기반한 융합기술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임파서블푸드(Impossible Foods) 창업자 패트릭 브라운 박사는 컴퓨터 생물화학자로서 2009년 교수직을 사퇴한 후에 '동물 농업이 지구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줄인다'는 명제 하에 2011년 임파서블푸드를 설립했다.

그는 대체육 개발 과정에서 고기 맛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로 헴(Heme)을 지목했다. 헴은 혈액안에 철분분자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고기의 붉은색과 특유의 풍미를

나타낸다. 그는 혈액의 주성분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콩과식물의 뿌리에서 식물성 헤모글로빈 분자물질 추출하여 효모를 유전공학적 발효과정을 거쳐 업스케일 하였다. 자연상태에서 추출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정부는 'K-블러드 파밍 프로젝트'를 통해 세포기반의 인공혈액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적혈구에서 유래한 헴 단백질의 생산을 위한 줄기세포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이러한 인공혈액 기술은 의료용을 넘어 식품 용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알파폴드와 로제타폴드 같은 AI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기술과 결합하면, 대체육에 적용할 수 있는 헴이나 이와 유사한 풍미의 분자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I는 식물성 단백질의 입체구조를 재구성하여 고기의 풍미를 지배하는 입자 수준의 반응을 예측하고 인공혈액의 헴 성분을 최적화하여 배합하여 실제 고기와 유사한 풍미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식품업계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 식품의 식감, 조직감, 씹힘 정도 등은 대부분 관능평가(Sensory evaluation)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재현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나노코리아 2025'에서 축각센서를 탑재한 로봇핸드기술을 공개했다. 이 기술은 인간의 손가락처럼 촉감, 온도, 압력 등을 감지할 수 있어서 식품의 조직감, 점성, 탄력성 등을 수치화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로봇핸드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결합하면 축적된 수많은 관능데이터와 비교하여 식품품질을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고기의 씹힘정도나 조직의 결을 사람의 손처럼 감지하고, 그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이 제품은 실제 고기와 92% 유사"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I 시대에 푸드테크는 더 이상 '첨단'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인공혈액 기술로 풍미를 보완하고, 축각로봇으로 식감을 판별하며, AI로 전체과정을 설계한다면 식품개발은 더 안전하고, 더 지속가능하며,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식탁을 바꿔놓을 것이다. 기술이 맛을 알고, 로봇이 고기를 느끼는 시대, 지금 우리는 그 문턱에서 있다. / (사)인원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 K-방산, '기회의 문' 앞에 서다



기지수첩  
이승용  
(산업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이 흔들리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국제 무대 전면에 본격 등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방향을 넘어 유럽 각국의 군비 확충과 군수품 재고 비축이라는 실질적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K-방산이 이 흐름의 한복판에 선 이상, 단순한 기회를 넘는 전략적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 방산업체들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이다. 유럽과 미국 등 전통적 방

산 강국들이 느린 생산과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로 공급 차질을 빚는 사이, 한국은 신속한 대응과 일사불란한 공급망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대표적 사례가 폴란드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백 대를 발주하며 한국 방산의 역량을 실시간으로 검증했다. 공급 계약 체결에서 실물 납품까지 이어지는 속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무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세가 오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단순한 납품 속도나 가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무기체계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미래전 양상이 급변하면서, 지속 가능한 기술력과 시스템 통합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드론, AI, 무인화, 우주방위, 에너지 무기와 같은 미래형 플랫폼에서의 경쟁력 확보 없이는 '저가형 대량 생산국' 이미지에 머무를 수 있다.

또한, 해외 고객들은 단순한 완제품 납품

이 아니라, 유지보수(MRO), 교육훈련, 현지 생산 파트너십까지 포괄한 종합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 방산국들은 이미 자국 내 생산 유도, 기술 이전 등을 수출 계약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제는 무기를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파트너 국가와의 신뢰 구축, 장기적인 운용 지원 체계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다.

K-방산이 진정한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정부는 무기 수출 대상국과의 외교적 교섭력 강화, 수출 절차 간소화, 국방기술 보호와 이전의 균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민간 기업은 미래 기술 투자와 품질 보증 시스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기회를 일궈내는 것은 속도와 가격이지만,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품질과 내실이다. '전쟁특수'를 넘는 전략적 성장이 필요한 때다. / lsy2665@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7월 10일 (음 6월 16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가족의 협조로 어려운 일을 잘 마무리. 48년생 인맥을 이용하여 좋은 정보를 얻는다. 60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니 실망은 금물이다. 72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84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다.
- 소** 37년생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내게는 이익. 49년생 친구와 여행계획이 생긴다. 61년생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를 위한 날. 73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을 수 있다. 85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지 마라.
- 호랑이** 38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심산. 50년생 옳은 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62년생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 74년생 일이 잘 풀리려 듯하다 고인다. 86년생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된다.
- 토끼** 39년생 정확한 일처리를 위해 항상 문서로 작성. 51년생 남의 말이나 뒷말하지 말고. 63년생 언제나 베풀 능력이 있는 것에 감사하도록. 75년생 태양은 항상 떠 있는데는 끼지 못한다. 87년생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 염** 40년생 허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를 높인다. 52년생 판단력이 흐려지지 조심. 64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마음이 편하다. 76년생 새로운 기회로 영업이득을 얻는 좋은 날. 88년생 심신이 고달프나 재물은 얻는다.
- 뱀** 41년생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53년생 어제의 친구가 나를 곤경에 빠지게 한다. 65년생 오늘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편안. 77년생 말은 마음을 담는 것이니 신중하게 해야. 89년생 격한 감정이 체면을 구길 수 있다.
- 말** 42년생 손해를 본 듯해도 결과는 좋다. 54년생 지나친 욕심만 버리면 기본 좋은 하루. 66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78년생 누구나 가슴속에 옥이라는 행운이 있으니 희망을 갖자. 90년생 남에게 해를 끼치면 두 배로 돌아온다.
- 양** 43년생 겸손을 키우고 자식 분별하는 마음을 접으면 내가 편안할 터. 55년생 오후 집안 청소를. 67년생 고상한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다. 79년생 병도 약도 내 손안에. 91년생 어제 먹은 음식이 상한 것임을 오늘 비로소 알게 된다.
- 원숭이** 44년생 지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 56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68년생 당장 성과가 없어도 노력하라. 80년생 머리는 좀 아프나 결과는 좋다. 92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금세.
- 닭** 45년생 숨겨뒀던 재능을 발견하여 유용하게 사용. 57년생 상사와 상부상조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69년생 운이 힘드니 일을 자제. 81년생 아름다운 옥포는 옥포이니 누군가는 알아주게 된다. 93년생 말쑥수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개** 46년생 성과가 좋고 원하던 것을 이룬다. 58년생 종일 행운을 부른다. 70년생 바른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 82년생 편하지 않는 길이 위기라면 반듯한 길도 나오기 마련. 94년생 다툼이 있으나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다.
- 돼지** 47년생 개나리를 보고도 볼을 느끼지 못함. 59년생 발전이 없어도 오늘은 현상유지가 최선. 71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유의하자. 83년생 걱정이 해결되니 고생한 보람이 있다. 95년생 실력은 자신의 사회생활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가.



## 김상회의四季 직장을 자주 옮기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업이나 직장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사주를 보면 오행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나이 마흔에 벌써 네 번이나 직장을 옮긴 사람이 있었다. 그중 한 번은 직종까지 바꿨다.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전 직장에서는 정말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에게 너무 자기 탓을 하지 말라고 일러줬다. 타고나 사주의 영향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고 다독여줬다.

편중된 오행의 불균형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특정 오행이 너무 많으면 그 오행이 상징하는 기운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나의 오행이 지나치게 강한 기운을 내뿜으면서 다른 오행과의 조화를 깨뜨리고 직업이나 직장 문제에 큰 변화를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오행이 편중된 사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편중된 오행을 잘 활용하면 특정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직장을 자주 옮기면 돈도 모으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기에 재물과 관련한 부분도 자세히 짚어봤다.

돈 문제는 재성이 관성을 생생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직업이 재물 활동과 연결되면서 재물운의 흐름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였다. 본인이 노력을 기울이면 한쪽에 힘든 일이 생긴다고 다른 쪽도 따라서 나 빠지는지는 않는다. 직장운과 재물운은 순환이 다르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생겨나기도 한다. 직장을 자주 옮긴다고 직장운이 나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사주와 운세를 스스로 곡해하지 않는 것이며 운세를 잘 읽으면 방향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8		3	1	6
1		6		5	
	7	5			3
8				4	3
	4	1			2
7				8	4
		5		7	1
4	9		3	2	8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9	1	8	9	6	7
1	6	9	7	2	9	8	8
9	7	8	9	6	2	1	2
2	9	8	6	8	2	1	9
2	9	1	7	2	8	8	9
6	8	7	9	1	2	2	8
8	2	6	1	8	7	2	9
7	8	9	2	2	9	6	8
9	1	2	8	6	7	8	9

2	8	1	9	7	8	6	9
7	9	6	2	8	2	9	1
9	1	8	6	9	2	8	7
2	8	2	9	7	9	1	8
9	6	1	8	8	2	9	7
8	9	7	2	6	1	9	8
8	7	9	9	2	6	1	8
6	2	9	8	1	9	7	8
1	2	8	7	2	8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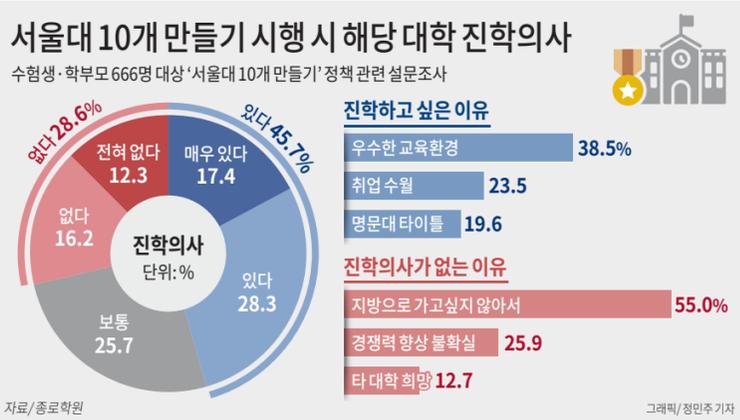
# 수험생·학부모 45% “상위권 대학 추가시 진학의사 있어”

### ‘서울대 10개 만들기’ 설문조사 수업 등 우수한 교육환경 긍정적 입시경쟁 완화 효과에는 회의적 종로학원 “또 다른 서열화 우려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 10명 중 4명 이상이 진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시 경쟁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9일 종로학원이 고등학생과 재수생, 학부모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학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5.7%로 나타났다. 이는 진학 의사가 없다는 응답(28.6%)보다 17.1%p 높다.

서울대 10개 대학 중 한 곳에 진학하



고 싶은 이유로는 ‘양질의 수업과 연구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할 것 같아서’(3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23.5%) ▲명문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19.6%) ▲장학금이나 기숙사 등 학생 지원이 강화될 것 같아서(13.9%) 순으

로 조사됐다. 반면, 진학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지방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55.0%)가 과반을 넘었고, 거점 국립대 경쟁력 향상이 불확실해서(25.9%),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서(12.7%)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제로 시행

되면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2.4%에 그쳤고, ‘아니다’는 응답은 41.1%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아니다’라는 응답도 14.3%에 달해, 입시 경쟁 완화에 대한 기대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거점 국립대 진학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의사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47.0%로, ‘있다’는 응답(26.3%)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지방권에 서울대 분교가 생긴다 해도 지역 내 정착을 제고를 위해 기업 연계 등 별도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 시 추가되는 예산의 사용 방향에 대해 응답자들은 ‘교수진 및 기자재 등 교육 여건 개선’(34.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장학금·기숙사 등 학생 지원 확대

(31.6%), 산학협력 등 취업 연계 활동(31.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5일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실시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제 시행되더라도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대학이냐에 따라 진학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해당 지역 내에 특정 기업 등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다면 졸업 후 지역 정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입시 경쟁 완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다른 서열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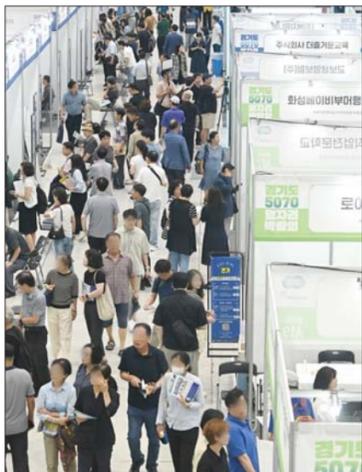
## 경기도, 50~70대 중장년 취업 돕는다

###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 하반기 ‘그레이트잡투어’ 추진

경기도가 9일 수원메세에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는 ‘경기 5070 그레이트잡투어(Gray it-job tour)’를 추진한다.

‘경기 5070 일자리 박람회’는 50~70대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연계 행사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전직 지원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순한 현장 채용에 그치지 않고,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관련 직업군 소개와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가 함께 이뤄진다.

이번 박람회에는 KB플러그라이프케어, CJ프레시웨이 등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약 1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채용설명회 ▲채용관·홍보관 ▲취업준비관 ▲일자리체험관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



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세에서 열린 ‘경기 5070 일자리 박람회’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채용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된다. 경기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베이비부머 인턴십’ 등 중장년 친화형 일자리 정책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교육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5% 인상

(0~2세)

###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집행 계획 교재·교구 등 보육의 질 향상 기대

교육부는 7월부터 0~2세 영유아와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0~2세 및 장애아 53만5000여 명에 대한 보육료 인상 예산 1131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0~5세 전 계층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에게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부모보육료가 지

원된다.

이번 추경에 따라 부모보육료는 ▲0세반 월 54만원→56.7만원 ▲1세반 47.5만원→50만원 ▲2세반 39.4만원→41.4만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7만원→61.6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매월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아동 1인당)도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0세반 62.9만원→66만원 ▲1세반 34.2만원→35.9만원 ▲2세반 23.2만원→24.4만원 ▲장애아 68.6만원→72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시설 설비비, 냉·난방 등 관리 운영비 지원이 확대돼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

다. 특별활동비 등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료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확보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과 같이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추경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독산·시흥동 일대 신통기회 추진

### 32만㎡ 통합적 개발계획 발표

서울시는 독산로변 시흥동 810 일대를 시작으로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총 5개소에 대해 지역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신속통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독산동 1036·1072 일대 2개소의 계획을 확정하면서 독산·시흥동 일대 약 32만㎡(4개소, 7300세대 내외)에 대한 통합적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 일대의 신속통합계획이 본격화되면,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약 44만㎡에 달하는 도시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

용도지역은 2종7층주거에서 3종주거로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최고 40층의 탄력적인 높이 계획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또한 ‘2030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등 사업 지원방안도 적극 도입한다.

조남준 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은 “독산·시흥동 일대는 기획 초기부터 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지역맞춤형 통합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례”라며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돼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신속통합계획이 만들어 내는 신통한 도시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정책포럼’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미래 서울특수교육 상상 정책포럼’을 10일 왕십리 디노체커넨션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특수교육의 현재를 점검하고, 서울특수교육원의 비전과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교원, 학부모,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하며 ▲주제 발표 ▲현장 의견 청취 영상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 05:19 | 해질 / 19:55

**7월 10일 (木)**  
음력 : 6월 16일

**수도권 날씨**  
25~35℃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21/33, 동두천 22/33, 가평 21/32, 양평 22/33, 용인 24/34, 평택 23/33, 수원 24/34, 인천 24/33, 파주 21/33, 서울 25/35, 백령도 23/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 ▲트럼프 행정부 “중 등 외국인의 농지 소유 제한할 것”
- ▲메르츠 독일 총리, 10월 첫 방중 추진…재계인사 대동



- ▲자동차 뿐만 아니라…“25% 상호관세로 항공기 부품·건설기기 등도 큰 타격”
  - ▲대만군, 최대 규모 ‘한광훈련’ 돌입… 中 무력 침공 대비
- 사진 뉴시스

- ▲국내서 대외활동 나선 시진핑… 규율·반부패 강조
- ▲‘SK온 배터리 공급’ 日닛산차 美공장, 전기차 생산 연기하기로



패션업계  
관광객·중시장  
'투트랙' 전략  
L1



Life

K-뷰티업계  
사람도 강아지도 관리  
'반려 라이프' 공략  
L2



# 핏에 감탄, 시원함에 또 감탄 여름에도 '쿨~'하게 입자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그리티 '감탄브라'

수많은 이너웨어 브랜드들이 '편안한 브라'를 내세우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매출과 화제성, 고객 충성도 모든 면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입증한 건 단 하나 '감탄브라'다. 출시 이후 수천만 장이 팔린 이 메가히트 상품은 이름 그대로 '감탄을 부르는 브라'로 자리매김하며 올여름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웨어 전문기업 그리티(GRITTEE, Inc.)의 심리스브라 브랜드 감탄(gamtan)이 또 다시 브랜드 사상 최고 일 매출 기록을 경신하며 감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감탄브라는 지난 6월 14일 소매기준 일 매출로 11.5억을 돌파하면서 역대급 최고 일 매출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올 4월 20일 올해 첫 5억 원을 돌파한 후, 지난 5월 21일과 22일 연속으로 6억 원 이상의 일 매출을 달성한 것에 이어 6월 초에는 일 매출 7억을 돌파하는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다 지난 주말간 트래픽이 집중하며 달성한 역대급 신기록이다.

이번 성과는 감탄브라가 꾸준히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와 소비자 만족도, 뛰어난 품질력 등을 바탕으로 브랜드부터 제품 개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폭발적인 수익성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브랜드 모델로 발탁한 손예진과 광고 캠페인으로 노출되는 감탄 제품들이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손예진브라'로 불리는 등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인기 상승과 매출 신장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네이버나 구글 검색 트렌드에서 '심리스브라' 검색 시, 압도적으로 감탄브라 트래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 ◆쾌적한 착용은 물론, 자세교정까지

'손예진브라'로 인기몰이 중인 대표 제품 '감탄 인견쿨', '자세브라'의 2025 S/S 시즌 신규 라인업은 소재부터, 디자인, 품질력까지 확실한 제품 강점을 기반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출시해 무더운 여름철 대비 챙겨야 할 필수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론칭 캠페인을 시작한 날부터 감탄 온라인 공식몰 신규 회원 수가 급증해 6월 15일 기준 일 평균 회원수가 7배 나 늘었고, 두

심리스브라계 '메가히트' 상품 등극  
매출·화제성 등 독보적 존재감 입증  
소재, 디자인, 품질까지 삼박자 갖춰

통기성 뛰어난 냉감소재 '인견쿨' 라인  
입기만 해도 자세교정효과와 '자세브라'  
냉감에 슬림핏 더한 '쿨커빙 브라' 등  
쾌적한 여름 위한 다양한 라인업 선보



2025년 여름버전  
'에어쿨 자세브라'

제품 모두 1차 판매 예상 수량을 훨씬 뛰어 넘어 빠르게 추가 입고를 서두르는 등 판매량 역시 급증했다.

누적판매 2700만 장의 감탄(gamtan) 대표 인기제품인 '감탄 인견쿨'의 경우 베스트셀러 '인견쿨' 라인의 2025년 여름 버전 신제품으로 효성티앤씨와 콜라보한 '아쿠아 프레쉬 25+인견' 원단을 적용해 더욱 부드럽고 시원해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감탄 최초 반타공 패드 적용으로 통기성이 뛰어나며, 흡습성이 좋아 땀이 나도 빠르게 마르며 여름철 신경 쓰이는 냄새 걱정도 없다.

와이어가 없는 심리스브라로 안 입은 듯 최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더마테스트사의 '엑셀러نت 오리지널(Excellent Original)' 등급을 인증 받아 예민한 피부도 안심하고 입을 수 있다.

품질대란을 이끌었던 베스트셀러 '자세브라'의 2025년 여름버전 신상 '에어쿨 자세브라'는 매일 입을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자세가 교정되는 제품이다.

자세교정이 필요한 직장인, 학생부터 운동 시 스포츠 브라 대용으로 착용 가능하다. 걸감과 안감 모두 Mesh 원단 적용으로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브라 제품보다 탄탄한 착용감과 통풍 기장감으로 등살, 부유방 등 미운 군살을 잘 잡아주며, X핏특허 기술 적용으로 등과 어깨를 당겨주어 자세교정과 함께 예쁜 어깨라인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신상 출시·대대적 마케팅으로 만족도 ↑

이달 초에는 신상 '쿨커빙 브라'를 선보였다. 쿨기능 원단 적용으로 즉각적인 냉감 효과와 극강의 통기성으로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뛰어난 품질력을 갖춘 감탄 브랜드의 안정감과 편안한 핏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슬림한 핏을 연출할 수 있는 업드레이드 디자인이 특징이다.

우수한 통기성과 자연스럽고 예쁜 가슴 라인을 연출해주는 여름에 최적화된 패드를 적용했으며, 앞 중심 홈 포인트와 가슴을 모아주는 디자인으로 고혹적인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깊은 저중심의 V넥 스타일로 다양한 상의와 입어도 보이지 않는 깔끔한 핏을 연출할 수 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4주년 기념 '감탄제'에서 2025 여름 신상 '쿨커빙' 라인을 최대 39% 할인 혜택가로 만날 수 있으며, 올여름 신상으로 선보이는 '노브라티', '데오브라탑', '에어랩' 라인 등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 준비를 위한 필수 언더웨어들도 특별 혜택가로 선보인다. 또 베스트셀러 '인견쿨' 라인과 '에어소프트' 라인 등 론칭 4주년을 기념해 감탄의 다양한 제품들을 놀라운 혜택가로 구매할 수 있다.

장성민 그리티 사업총괄 부사장에 따르면 "감탄브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지와 뛰어난 품질력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인 브랜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적극적으로 대대적인 마케팅도 전개해 나갈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 브랜드 캠페인명인 '감탄에 감탄'처럼 입어본 모두가 감탄하며 만족하는 진정한 국민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에비앙 챔피언십 파워랭킹 1위는 리디아 고... 김효주 3위 /사진 뉴스시스  
▲원헌 김민재, 이번에는 이강인 속한 PSG와 이적설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6일 만에 멀티히트...시즌 타율 0.246  
▲'3연속 우승 도전' 임종훈-신유빈, WTT 미국 스매시 혼복 8강 진출

▲2026 WBC 한일전, 내년 3월7일 오후 7시 개최...조별리그 시간 확정  
▲역도 전희수, 아시아주니어선수권 여자 77kg급 금메달 3개



진정한 AI 폰  
**Galaxy S25 | S25+**  
 Galaxy AI ✨

최신 폰 사는. 최선의 방법.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월 5,900원으로 **Galaxy S25 Series**를 반값에, 파손 보장까지!

1년 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가 보장되는 조건이며, 2년 후 반납 시 최대 40%까지 보장됩니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가입 기간에 삼성닷컴을 통해 자급제 갤럭시 S25 시리즈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삼성 개인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가입신청서 작성 후 차월부터 자동 결제됩니다. 외관 파손, 전원 작동 불가, 계정 미삭제 제품 제외 모두 반납 대상입니다.

**samsung.com**

상기 이미지는 갤럭시 S25, 갤럭시 S25+이며,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AI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UI/UX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